

롯데 주총 아이러니

metro®

메트로 2015년 8월 18일 화요일 제3281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7일>

코스피	1968.52	(-14.94)
코스닥	722.01	(-9.35)
금리(국고채 3년)	1.73	(+0.02)
환율(원·달러)	1182.30	(+7.70)





2조 날린 백기사

KCC, 삼성 합병 돕다가 자기가 '거지'될 판
매입한 삼성물산 자사주 평가손실 2270억원
KCC 주가도 급락… 삼성주총후 -1조6200억

삼성물산에 '백기사'를 자처한 KCC(회장 정몽진·사진)가 막대한 손실을 떠안으며 진퇴양난에 빠졌다. KCC는 6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거들었다. 하지만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KCC 주가가 동반 하락하며 2조원 가까이 평가손실을 입게 됐다. 급기야 정몽진 KCC 회장은 자녀들까지 동원해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 방어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KCC는 전날과 같은 39만8000원에 보합 마감했다. KCC 주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 전날인 지난달 16일 55만2000원에서 현재 27.89%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5조8070억원에서 4조1870억원으로 1조6200억원이 증발했다.

이날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0.5%(250원) 내린 4만9750원, 제일모직은 0.34%(500원) 떨어진 14만5000원을 기록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지난달 17일 합병 이슈로 고점을 찍은 이후 현재까지 각각 30.71%, 28.32% 역주행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株 평가손실 1조원

KCC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돕고자 지난 6월10일 종가 7만5000원에 삼성물산 자사주 5.76%를 사들였다. 지난해 영업이익보다도 두 배가 많은 6743억원을 투입했다가 2270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으니 3분의1 넘게 허공에 날렸다.

특히 KCC가 보유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전체 지분가치를 따지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 지난 6월 기준 KCC가 가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은 각각 931만주(5.96%), 1375만주(10.19%)다. 이에 따라 KCC는 삼성물산 주총 이후 현재까지 한 달 만에 삼성물산에서 1820억원, 제일모직에서 6668억원 등 총 8488억원의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KCC가 무리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극'에 출연했다가 투자 실패뿐만 아니라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KCC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85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8% 감소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8579억원, 561억원으로 각각 3.8%, 19.7% 줄어들었다. 페인트 등 도료업이 본업인 KCC는 전방산업인 조선과 자동차 업황 부진으로 하반기 실적 전망도 어둡다.

◆자사주 매입 효과…'반짝' 상승 그쳐

정몽진 KCC 회장은 최근 삼성물산 투자 실패와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자녀들까지 동원해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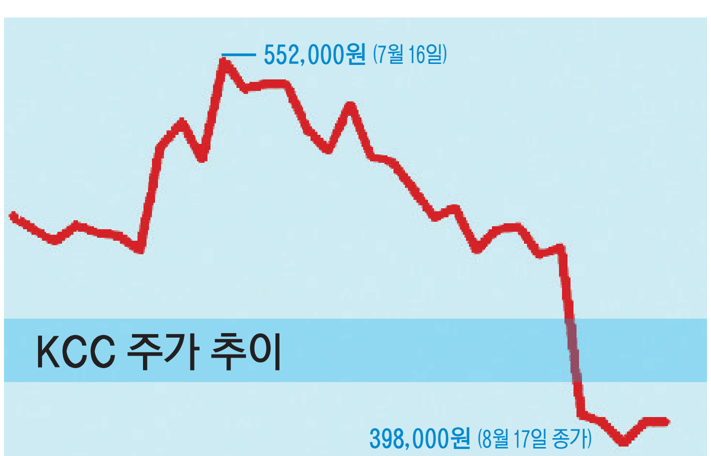
KCC는 정 회장이 지난 12일 보통주 4983주를 장내 매수해 보유 지분율이 17.76%에서 17.81%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정 회장의 딸 재림씨와 아들 명선씨도 각각 2740주, 4900주를 장내 매수했다. 이들의 주식 취득가는 49억원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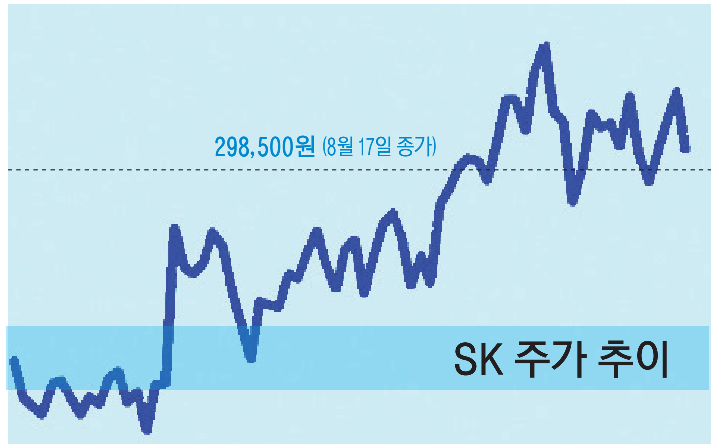
정 회장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폭락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 7년 동안 지분을 늘리지 않다가 '투자 실패'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다시 나서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CC 주가는 자사주 매입 다음날인 13일 2.45% 오르는 데 그쳤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정 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할 정도로 KCC 주가는 위기"라며 "업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무리하게 투자해 후폭풍을 만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청개구리 국민연금

합병찬성한 삼성 주식 급락
반대표 던진 SK는 급등

기금규모 5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운용 본부장 홍완선·사진)의 투자운용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한 SK와 SKC&C의 주가는 크게 오른 반면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도리어 떨어진 것.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손을 든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주가를 포함해 삼성그룹 투자에서 모두 1조5000억원에 이르는 평가손실을 보았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율은 각각 11.88%(1856만1301주)와 5.04%(697만7871주)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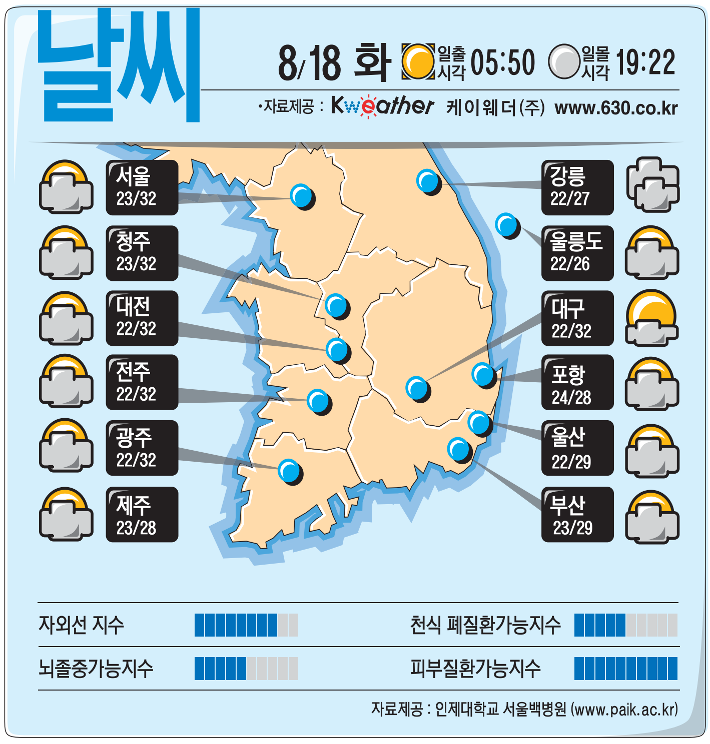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주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16일 종가기준 각각 6만9300원, 19만4000원이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진 주가는 한 달 만에 각각 28%, 25% 하락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서 3629억원, 제일모직에서 3384억원 등 총 7013억원의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삼성그룹 계열사 12곳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해 합병안 통과 이후 삼성그룹 계열사 투자에서만 17일 현재 2조7000여억원에 달하는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주총에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면서도 찬성 이유를 밝히지 않아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반면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의견을 표한 SK와 SK C&C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SK C&C 주가는 SK와의 합병 과정에서 꾸준하게 상승했다. SK C&C가 SK와의 합병을 발표한 지난 4월20일 23만1500원이던 주가는 합병 신주로 상장하기 전날인 지난 13일까지 30%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도 10조2000억원에서 13조6620억원으로 3조4620억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SK C&C의 경우와 반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크게 내려 국민연금의 투자 기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정치·사회

▲ 
새정치민주연합이 롯데 사태를 기회로 재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내에 **'재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특위 위원장은 '삼성 저격수' 박영선 의원을 임명했다.

▲ 새누리당이 올 하반기 최대 국정 과제로 정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 전 의원의 비리혐의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청와대**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내달 9일부터 201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의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수시모집은 전체 선발 인원의 67.4%인 24만976명을 선발하고 수시 모집인원의 85.2%(20만5285명)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 **부산대학교 교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발해 대학 본관 건물에서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오후 3시쯤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본관 건물 4층에 있는 테라스 형태의 국기 게양대에서 고모(54) 국문과 교수가 뛰어내렸다. 고 교수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분 만에 숨졌다.

경제·산업·유통

▲ 
'다음카카오' 주가가 지난 2분기 실적 부진에도 신규사업의 잠재력과 해외시장 진출 기대감에 날아오르고 있다.

▲ 삼성물산에 '백기사'를 자처한 **KCC**가 막대한 손실을 떠안으며 진퇴양난에 빠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KCC 주가가 동반 하락하며 1조원에 달하는 평가손실을 입게 됐다. 정몽진 정몽진 회장이 자녀들과 함께 주가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 **삼성그룹**이 향후 2년간 1000억원 규모로 총 3만명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창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투자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서린동 SK사옥에서 SK그룹 확대경영회의를 열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의 장비투자 및 2개의 신규공장 증설 등에 46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 **SK그룹** 모든 계열사에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SK그룹은 이미 계열사의 9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할 예정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거의 완료 단계다.

▲ 올해 상반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등기임원 보수가 총 42억원으로 집계돼 정몽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억4000만원 줄어들었다.

▲ 롯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었던 17일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가 실상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자축 행사로 '빈껍데기'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법조계 유력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은 신동빈 회장이 신 전회장 측의 법적대응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20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린다. CJ그룹은 이 명예회장의 빈소가 18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돼 이날 오전 9시부터 조문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단체 "롯데, 시민에게 계양산 돌려줘라" 반발 1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인천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계양산 시민자연공원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롯데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작년 2월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소, 지난달 28일 '계양산 골프장 계획 폐지 취소소송'이란 이름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

아이러니한 롯데홀딩스 주총… 홍보용 쇼?

법정싸움 대비한 전략적 사외이사 선임 의혹
"롯데는 韓 기업, 지배구조개선 허락은 日서?"

롯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었던 17일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가 실상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자축 행사로 '빈껍데기'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동주(61)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법조계 유력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은 신동빈 회장이 신 전회장 측의 대응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롯데의 지배구조 개선 안건은 일본 롯데홀딩스 현지 주주들에게 허락을 받는 모습으로, 사실상 개혁정책의 추진동력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번 주총을 '홍보용 쇼'라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이날 주총에선 상정된 '사사키 토모코의 사외이사 선임건'과 신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개선안인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에 의한 방침의 확인' 등 신 회장 측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두가지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주총은 일본 도쿄(東京) 시내 데이코쿠(帝國)호텔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됐다. 약 15분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은 주총에는 참석했지만 동생인 신동빈 회장이 주도해 상정한 안건에 찬성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정싸움 대비한 법조계 유력인사 기용?

롯데그룹에 따르면 주총의 제1안건 '사사키 토모코의 사외이사 선임 건'은 일반결의안으로 참석지분의 과반수 이상, 전체지분의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참석한 총 지분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주총 결의는 총 지분의 3분의1만 참석하면 유효하다.

업계에서는 법조계 유력인사인 사사키의 이사선임을 두고 신동빈 회장이 다가올 신동주 전 부회장측의 법적대응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사키 토모코는 1983년 검사로 임관해 1998년 국회의원, 2003년 후생노동대신 세무관 2004년 변호사, 2005년 테이쿄대학교 법학부 교수를 지낸 법조계의 유력인사다.

이 정도의 법조계 거물이 신동빈 측에 있다면 롯데 장악의 절차상 문제 제기도 가라앉힐 수 있을 뿐만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17일 오전 일본 도쿄 데이코쿠(帝國) 호텔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 총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니라 앞으로 있을 신 전 부회장과의 싸움 역시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다.

지난 7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의 허락없이 12개의 L투자회사 대표이사로 취임·등기 했다며 '법적대응'을 경고했었다. 기존 대표이사인 신 총괄회장의 동의 없는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절차적·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롯데는 한국기업", 허락은 일본에서 받는다?

지난 11일 신 회장은 롯데가 한국기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경영투명성을 위해 순환출자의 80%이상을 연말까지 해소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선 이에 대한 허락을 일본 롯데홀딩스 현지 주주들에게 받는 모습을 연출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말에 모순이 있다. 기업은 한국기업인데 모든 사항은 일본 롯데홀딩스를 통해 정해진다"며 "국내 계열사를 통해 호텔롯데 지분을 매입하던가 해서 한국기업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일본 주주들이 허락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은 97.17%를 일본 회사가 갖고 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회사 내 주요 사항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또한 제2안건 중 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경영체제를 확고히 하자는 내용은 주총 안건으로는 보기 드문 사례로 찬반을 나누기도 애매한 안건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실상 안건이라 할 것도 아니다. 어느 주총이 오너를 중심으로 잘해보자는 안건을 내느냐"며 "이번 주총은 일종의 신동빈 회장 측의 자축행사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엄포했던 신동빈 회장의 이사해임 건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재계는 이미 신동빈 회장을 위해 차려진 밥상에서 안건을 제기하기 보다는 향후 새로운 주총을 수집하거나 법정싸움을 통해 이사해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회사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라면 누구든지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 NHK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현장 기자들에게 "앞으로도 동료인 사원과 거래처 여러분과 함께 걸어 가고 싶다"며 경영권 분쟁에 나설 뜻임을 시사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폭발사고 톈진항 기능 정상화

유독가스 우려로 주민 공포
빈하이신구 성장 타격 우려
17일 사망 114명·실종 70명

중국 북부의 물류 중심인 톈진항이 지난 12일 폭발 사고 이후 5일만에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고 17일 항만 당국이 발표했다. 폭발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슈퍼컴퓨터도 서비스를 재개해 슈퍼컴퓨터와 연결된 금융·상업 활동이 다시 가능해졌다. 하지만 구조와 수색 활동은 계속 진행 중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항구의 주 접안도크는 폭발 다음날 아침부터 가동을 시작하고, 폭발 지점과 가까운 곳을 제외한 정박지·창고도 정상화됐다. 하지만 부두의 하역 업무와 선박의 교통은 폭발이 일어난 창고에 쌓였던 화학물질로 인해 부분적으로 정지상태에 있었다.

톈진항은 중국 북동부 최대의 해운 관문이다. 수입 자동차의 대략 40%가 들어오는 곳이다. 철광석 수출도 이 곳을 통한다. 이번 사고로 인해 철광석 수출이 여러 차례 중단됐다.



톈진항 기능은 17일 정상화됐지만 폭발지점 인근 빈하이신구 주민들 수천명은 집을 떠나 있다. 화학물질 공포에 마스크를 쓴 채 이들은 거리에 나와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폭발 지점에서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한 슈퍼컴퓨터가 폭발 1시간 후부터 멈춰 이 컴퓨터에 의지하던 인근 은행과 백화점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슈퍼컴퓨터의 냉각장치와 전원공급 장치가 위치한 건물의 벽과 창문 등이 손상된 결과였다.

이날 이 컴퓨터도 가동을 재개해 빈하이신구의 상권도 정상화됐다.

일단 항만 등의 기능은 정상화됐지만 이번 폭발로 항구가 자리한 빈하이신구의 성장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빈하이신구는 중국 북동부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곳이다. 남동부의 상하이 푸동지구와 쌍벽을 이루고 있다.

폭발의 영향은 인근 1만7000여 가구와 1700여 기업에 미쳤다. 최소 6000명이 집을 벗어나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유독 화학물질과 유독가스는 여전히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

화학물질 제거작업은 수색과 구조작업과 함께 진행 중이다.

이날 수색팀이 두 구의 시신을 더 수습해 사망자는 114명으로 늘어났다.

실종자의 수는 종전 95명에서 70명으로 대폭 줄었다. 시신 중 25명의 신원이 확인된 결과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모두 54구이다. 이 중 39구가 소방관들의 시신이고, 5구가 경찰관의 시신이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는 698명이다. 이 중 57명은 중태이다.

수색·구조작업은 유독화학물질과 철제 잔해들로 인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

정몽준 'FIFA 회장' 출마 선언

'아시아 새바람' 슬로건
반부패 위해 단임제 약속
내년 2월 26일 선거 예정
플라티니 등과 경쟁 치열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은 이날 파리 샹그릴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십 년 동안 FIFA에 부패의 악순환이 지속하고 커져왔다. FIFA에 상식과 투명성, 책임감을 되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FIFA 개혁을 위해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새바람'을 전면에 내세웠다. 유럽이 지배해 온 FIFA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려면 아시아 출신인 자신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아시아 인구가 44억명, 아프리카는 12억 명으로 이 두 대륙을 합치면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다. 만약 아시아와 아프리카 주요 도시에 축구팀이 만들어져 유럽과 경쟁한다면 세계 축구가 얼마나 발전할지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 중인 정몽준(64)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 /뉴시스

그는 부패 방지를 위해 "내가 FIFA 회장에 당선되면 4년 임기로 한 번만 회장직을 맡겠다"고 약속했다.

차기 FIFA 회장 선거는 내년 2월 26일 스위스 취리히의 FIFA 본부에서 치러진다. 프랑스 축구스타인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 지난 FIFA 회장 선거에서 블라터 현 회장과 맞붙은 알리 빈 알 후세인 요르단 왕자가 정 명예회장과 경쟁한다.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박영선' 내세워 재벌개혁 시동

재벌개혁특위 내달 초부터 활동
유종일 교수 등 외부전문가 영입
고질병 '콘텐츠 부실' 극복 관건



지난 5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열린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공개토론회' 모습. 새정치연합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17일 재벌개혁특위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위원장은 '삼성 저격수'인 박영선(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맡았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롯데 사태를 기회로 '삼성 저격수' 박영선 의원을 내세워 재벌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구호만 있지 콘텐츠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내 전문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최근 박 의원실에서 재벌개혁을 주도해 온 전문가가 업무에서 손을 뗀 상태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예정이지만 고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17일 재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내에 '재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시장 개혁과 재벌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주도권 확보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5일 열린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토론회'에서 당내 특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재벌개혁특위는 박 위원장이 임명한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문가 다수를 위원으로 영입할 예정"이라며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특위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위는 다음 주까지 위원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활동시기에 대해 박 위원장은 "롯데 사태로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얻은 만큼 오는 9월 초부터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재벌개혁 관련 법안을 여러 개 발의한 바 있어 특위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안 실무를 맡은 재벌전문가가 의원실에서 사실상 이탈한 상태라 위원장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전문가는 올해 초 박 의원실 보좌관으로 합류한 뒤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작성 실무는 물론이고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협력 업무도 맡았다. 시민단체와의 협력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미 발의된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의 경우 그동안 △금산분리를 위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를 규정한 상법 △이학수법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증손회사에 대해 100%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 투자자의 무분별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삼성 합병을 계기로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도 내놨다.

같은 당의 신학용 의원은 대기업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신규 순환출자에 나서는 것을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언주 의원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외국법인 주식보유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기업내부에 경영승계 과정에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의무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정원 기자 garden@metroseoul.co.kr

새누리, 노동개혁 속도낸다

내달 초까지 법안 제출

새누리당이 올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정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 초까지 노동개혁 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당내에서 노동개혁에 총대를 멘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17일 청년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노사정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5개 개혁법안을 조만간 새누리당이 제출하면 9~11월 동안 여야가 심도 있게 토론하고 대타협을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유럽 선진국이 국민경제 회복의 열쇠인 노동개혁을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함께 경제 체질의 획기적 전환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박근혜계(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 역시 "노동개혁에 대해 일부 언론과 국민들이 일자리 뺏는 개혁 아니냐고 하는데 노동계를 유연성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지역 순회 세미나 등 국민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친박인 윤상현 의원은 "노동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다. 야당은 생뚱맞게 끼워 넣고, 조건 달고, 논의주제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지도부를 거들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으로 맞설 방침이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있다.

이동학 혁신위원은 "혹자는 정년연장 대상자들의 임금을 깎는다고 실업상태의 청년들이 구제되는 것이냐고 묻지만 청년고용 효과와 별개로 노동계가 양보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 수용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양보를 기업에 요구하자고 했다.

특히 "노조에 의해 포획당한 정당이란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노조를, 새누리당은 기업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원 기자

총기난사 임 병장 항소심도 '사형 선고'

집단따돌림 정상참작 안돼



지난해 6월 고성군 육군 22사단에서 총기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3·사진) 병장이 17일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군 재판부는 집단 따돌림에 대한 분노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병장 사건은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함께 우리 군의 충격적인 인권 침해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두 사건으로 인해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란 말이 세간에 유행하기도 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임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병장이 범행과정에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며 "극도의 인명 경시"라고 했다. 또 집단 따돌림에 대한 분노가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의 판단에는 임병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유족측의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병장은 이날 재판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송병형 기자 bhsong@

軍 대북방송… 北, 확성기 '맞불'

"제2도발 징후는 아직 없어"

북한이 17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확성기로 맞불을 놨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확성기를 조준사격하겠다고 위협했던 것과 달리 우선 우리 군의 방송음이 북한으로 퍼지는 것을 맞불 소음으로 막아보자는 심산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이 동부전선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상황에서 북의 확성기 방송 재개는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동부전선에서 가동한 확성기는 남측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동해안 휴양지의 북한 상류층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의 확성기 방송은 주로 체제 선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맞서 북한군도 일선부대에 특별경계 강화지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UFG는 실병력이 움직이는 기동훈련과는 달리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훈련이라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은 우려보다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군 당국이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에 의도적으로 목함지뢰를 매설한 행위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부 시행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군 관계자도 "북한군이 당장 제2의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조정정년제 폐지·단계적 완화 추진”

강신명 경찰청장 “보완책으로 복수직급제 마련”



강신명(사진) 경찰청장이 경찰 내부 조정정년제 폐지,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면서 ‘복수직급제’를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서울시 서대문구 본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조정정년제의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승진 기회가 막히거나 과도하게 줄어들게 되면 조직의 활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조정정년제란 공무원 정년(만 60세)이 되지 않았지만 만 57세가 된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관행을 의미한다. 고위급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1999년 도입됐으나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강 청장은 “조정정년에 맞춰 인사구조가 형성됐기에 조정정년을 갑자기 변경하려면 인사구조를 바꾸려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복수직급제를 제안했다.

복수직급제는 한 직위에 계급이 다른 사람을 배치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과장 직위는 현재 총경이 배치되는데, 총경뿐 아니라 경무관도 과장으로 갈 수 있게 해 고위직 인사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강 청장은 “조정정년제에 대한 결정은 10월 말쯤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청장은 “내년 8월까지 법적 임기를 완수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며 “내년 4월이 총선이 아니냐. 총선에 나갈 수 없고 나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그간 불거졌던 ‘총선 출마설’을 일축했다.

/이홍원 기자 hong@metroseoul.co.kr



추석 앞두고 수조기 ‘풍어’ 차례상의 인기생선인 수조기가 17일 부산 공동어시장에 대량 위판됐다. 한번에 36t이 넘는 많은 양의 수조기가 위판되기는 드문 일이다. /연합뉴스

檢 ‘하청업체 금품수수’ 포스코건설 임원 구속기소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건설 상무 김모(55)씨와 전무 여모(59)씨가 구속기소됐다.

17일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6월 인천 연수동에 있는 식당에서 협력업체 D조경 사장 이모씨에게서 “조경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이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3차례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여씨는 포스코 비리로 D조경까지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 6월 “포스코건설이 제공한 서류 중 일부만 검사에게 들어가도록 해 수사를 무마해보겠다”며 이씨에게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주택사업 등을 하는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 출신이다. 검찰은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 8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1명의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그룹 전직 경영진과 유착해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달 12일 소환조사했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연미란 기자



변호사 업계 ‘변리사·세무사’ 영역 다툼

변리사법 폐지 서명운동 변호사도 대책 마련나서

변호사와 변리사, 세무사 사이의 사활을 건 영역 다툼이 시작될 조짐이다. 로스쿨 도입으로 국내 변호사가 2만 명에 가까워지면서 변호사 업계 내부 경쟁이 시작된 데다 업무가 겹치는 변리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 업계와도 영역 싸움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변호사 증가에 따른 위기를 느끼고 먼저 총대를 맨 쪽은 변리사와 세무사 업계다.

17일 법조계와 변리사 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는 이달 6일부터 모든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변리사법 제3조를 폐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8885명 중 자동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가 5379명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했다.

이들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수목적 법률전문가로서 지난 60년간 이 땅의 지식재산권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며 “기술과 특허를 모르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까지 주는 것은 비정상이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4월 변리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과거 변호사 수가 부족할 때 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 필요성으로 변호사 고유 업무영역 중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해 변리사 제도를 뒀다”며 “로스쿨에서 지식재산 분야 특성화 교육을 받은 변호사들이 다수 배출되므로 따로 변리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2012년 세무사 시험에 떨어진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를 토대로 세무세들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3조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변호사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변협은 이달 11일 변호사만 국가소송을 대리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현행 국가소송 관련법에는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무부 직원 또는 행정청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를 없애고 변호사만 소송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미란 기자 actor@

檢 ‘성폭행’ 의혹 사건 증거 확보 본격 돌입

심학봉(54·경북 구미갑) 국회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 확보에 본격 돌입했다.

대구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기록에 대한 서류 검토를 마무리하고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확인작업은 심 의원과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조사, 계좌 추적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변 인물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단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으로 당사자의 신분상 특수성보다 성폭력이 있었느냐, 사건 내용이 진실이냐가 중요하다”며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철저하게 수사 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심 의원이 성관계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했는지, 피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 등 사건무마 시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홍원 기자

입법고시 수석합격 이화여대생 차지

이화여자대학교(최경희 총장)는 법학과에 재학 중인 김나윤(06학번)씨가 올해 입법고시 일반행정직 부문에서 수석 합격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13일 발표한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6명 가운데 여성은 모두 7명으로 이 중 1명이 김나윤씨다.

김나윤 씨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좋은 성과를 내게 돼 기쁘다”며 “고시반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후배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 돕고 싶다”고 전했다.

이화여대는 경력개발센터 국가고시준비반을 통해 1차 공직적격성 평가시험(PSAT) 대비 특강과 전국모의고사, 2차 논술시험 대비 교수출제 모의고사, 최종면접을 통한 교수모의면접과 면접클리닉 등 각종 시험 차수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시 합격을 지원하고 있다. /복현명 기자 hmbok@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4월 건보료 폭탄' 내년부터 줄어든다

부과방식 당월 보수에 보험료 책정으로 변경

'4월의 건강보험료 폭탄' 소동이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당국이 정산방식 대신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쪽으로 보험료 부과방식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당국은 이 같은 건보료 당월 부과 방식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하되 적용 대상 기업을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동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부과해 거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과정에서 과다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해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일을 줄일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13년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 1만4785곳(1.1%)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이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봤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원래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따라서 호봉이나 월급이 오르고 성과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보수액이 변동되면 변동된 보수액에 맞게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불편함을 막기 위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런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고자 2000년부터 직장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먼저 부과하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에 이어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가 많이 나오자 직장인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해마다 4월이면 벌어졌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국제 특허법원 국제컨퍼런스' 진행

특허재판 권위자들 참석

17일 대법원은 국제 특허전문 법관이 참석하는 '2015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가 오는 10월 14일과 15일 특허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 컨퍼런스에는 베아테 슈미트 독일 연방특허법원장과 미국 내 주요 특허소송이 이뤄지는 시카고 북부 일리노이 연방법원의 루벤 카스티요 법원장, 시타라 류이치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등 국제 특허재판 권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미국과 독일, 일본의 특허 전문 법관은 물론, 유럽통합특허법원 준비 전문가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각국 특허소송의 실무를 비교하고 논의한다.

다만 각국 법원의 심리방식을 비교해 사실심을 다루는 우리 특허법원에서 참고하려는 것이어서 법률심을 다루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법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각국의 특허소송 절차 내규나 사건관리 매뉴얼 등을 받아 비교한 뒤 사건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만의 기준을 마련해 향후 특허소송에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후 열린 '지식재산 중심법원(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일본식 어투로 돼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특허명세서와 특허심판 심결문, 판결문 등의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지난 6월 회의에서 논의됐던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국제재판부가 설치되면 특허법원에서 앞으로 영어 등 외국어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고, 진술 내용이 동시통역 되는 한편 서류나 증거도 영어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제재판부 심리는 소송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도록 해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했고,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나 증인은 원격 영상 증언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연미란 기자

法 '개인회생 브로커'에 칼날… 63명 징계·경고

이른바 '개인회생 브로커'들에게 법원이 칼날을 겨누고 있다. 이들은 파산 위기에 놓인 개인에게 회생을 위해 허위 서류 제출을 종용하는 등 돈벌이를 위해 제도를 악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브로커 관여 추정 사건에 연루된 법무법인 9개,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무자격자 5명 등 총 30인(곳)을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위법 의심 사건에 관련된 법무법인 14개 등 28명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에 징계 요청했다. 또 법무법인 13개 등 35명에게는 서면경고를 했다.

이는 법원이 1년간 제도 악용이 의심스러운 개인회생 사건 349건을 분석해 내린 조치다. 브로커들이 채무자에게 불법 행위를 소개하고 사건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서면 경고나 징계 요청에 그친 대리인들에 대해서도 위법 정보가 추가로 수집되는 경우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제주4·3평화공원서 전통혼례 제주4·3평화공원 초대의 마당에서 17일 민중가수 최상돈씨와 재일동포인 아내 강상미씨가 전통혼례를 치르고 있다.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문화운동을 해온 최씨는 제주4·3평화공원은 추모와 동시에 평화의 미래로 나가는 기쁨의 공간이라며 공원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결혼식은 지난 2003년 제주4·3평화공원이 생긴 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대법, 이재현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변경 '허가'

20일까지 제한장소 추가 통상적으로 부친상시 허가

17일 대법원이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아버지 이맹희(84) CJ그룹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변경을 허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다.

앞서 이 회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을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1600억원대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은 이 회장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구속집행은 정지 중이지만 이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맹희 명예회장의 빈소가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같은 병원에 빈소가 마련되면서 이 회장이 장례식에 참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예상됐다.

이번 거주제한 변경 신청도 이 회장이 머무르던 병실에서 이 명예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이 회장이 장지 이동 등 서울대병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주지 제한 변경이 또 필요하다.

법원은 통상 수감자가 부친상을 당할 경우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 및 형 집행정지를 허가해왔다.

이맹희 명예회장은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현지 시각 오전 9시 39분쯤 별세했다. 이 명예회장은 2012년 폐암 2기 판정을 받고 일본에서 폐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림프절로 전이돼 그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투병 생활을 해왔다.

이 명예회장의 시신은 이날 오후 3시쯤 김포공항을 통해 도착하며 장례는 오는 18일부터 CJ 그룹장으로 진행된다.

/이홍원 기자 hong@

판례로 보는
만화형법

글:강세준
그림:까시
kkasy.co.kr

<2화 공갈죄>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8. 30선고 . 2012도6157, 공 2012하, 1645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펙 보다 역량… 금융권, 하반기 채용 시동

인원 대폭 확대…우리 240명·국민 300명·신한 230명

금융권이 하반기 인재 영입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9.4%)이 전년동월 대비 0.5%p 상승하는 등 고용 시장이 악화된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춘 조치다.

은행권 채용의 가장 큰 특징은 '탈스펙' 바람이다. 영어 성적이나 출신학교, 학점 등 소위 '스펙'보다 지원자들의 성장 가능성과 창의성, 인문학적 소양을 심사하겠다는 의미다.

또 내년 정년연장 도입을 앞두고 희망퇴직과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한편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지역 인재 등을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말 하반기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올 하반기 신규 채용 인원은 상반기(120여명)보다 배 이상 늘린 300~350명이 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하반기 채용을 통해 지난 5월 대규모 희망퇴직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채우고 청년층 고용고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채용은 학력이나 성별,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열린 채용'을 도입키로 했다. 특히 1차 면접에서는 자신이 읽은 인문학 서적을 토대로 면접관과 토론하는 '통섭역량면접'도 실시한다.

지난 13일까지 사무지원직군 접수를 끝낸 우리은행 또한 이달 말 일반직 공개채용에 들어간다.

앞서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올해 채용인원을 연초 계획 대비 2배 확대한 800명을 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올 하반기 200~27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도 연중 330명을 수시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을 순회하며 'We크루팅' 프로그램과 '지역전문가 제도'를 통해 인재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르면 11월 경 230여명의 정규직 신입행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 채용규모로 1000여명을 발표한 신한은행은 올 상반기 기존 계획보다 20% 확대한 284명(일반직 144명, 고졸특성화고 90명, 장애보훈 특별채용 50명)을 선발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지난달 보훈 특별채용을 시작으로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채용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한 시간선택제 RS(Retail Service) 직원을 올해 280명 채용하고 중장년층도 220여명 선발할 계획이다.

상반기 244명을 채용한 NH농협은행은 올 하반기 150~200명가량을 채용키로 했다. 다만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다.

이밖에 BNK금융그룹은 오는 20일부터 양일간 본점에서 7급 채용 서류 접수를 받는다.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투뱅크 체제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채용시기를 통일하고, 동일한 형태의 채용 시스템을 적용한다.

부산은행은 올해 특성화고와 5, 7급을 포함해 23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며 경남은행도 14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이다.

BNK투자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을 포함하면 주요 계열사에서 약 400명을 신규로 채용한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BNK금융 채용설명회에서 지원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BNK금융제공

기사제보=02)721-9832

다음카카오株, 장기 성장 기대감에 '쑥쑥'

| 마켓인사이트 |

증권가 "장기비전 살렸다"
4분기부터 이익개선 예상

'다음카카오'가 지난 2분기 실적 부진에도 신규사업의 잠재력과 해외시장 진출 기대감에 날아오르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주가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랠리를 펼쳤다. 이달 들어서는 지난 11일과 17일을 제외하고 연일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주가가 상승한 것은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카카오의 잠재력, 카카오택시의 호조세,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등 신규 사업의 잠재력이 넘쳐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 상승은 2분기 실적 부진에도 카카오택시와 #검색 등의 기대감을 바탕으로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카카오의 지난 2분기 매출액은 226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4% 감소해 시장 예상치를 9.5% 하회했다. 광고 매출 성장이 둔화됐고 모바일게임 시장내 탈카카오 현상으로 2분기 게임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71.7% 감소한 114억원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75.8% 밑돌았다.

SK증권 최관순 연구원은 "다음카카오의 장기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장기성장스토리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카카오채널과 샵(#)검색 서비스는 점진적인 안정화로 추후 광고모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올 상반기 부진했던 모바일게임은 프렌즈 팝 포 카카오의 사전예약이 75만명을 기록했으며 4분기 웹보드게임 출시로 인해 매출이 재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등 다양한 사업확장으로 하반기 비용 증가 요인이 존재하지만, 이는 장기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택시 등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향후 주가 상승을 견인할 전망이다.

지난 3월 출시한 카카오택시의 경우 하반기 중 고급형 택시 호출 앱을 출시하면서 신규 수익원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택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카카오대리운전과 카카오퀵 등 인접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의 하반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채널이 다음카카오의 핵심 수익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카카오채널의 본격적인 유료화와 기타 서비스 출시로 본격적인 이익 개선 효과는 올 4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시장 진출 역시 본격화할 방침이다.

성 연구원은 "다음 웹툰의 중국시장 진출 등 해외시장 진출 모멘텀도 풍부하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보단 모멘텀(상승 동력)에 주목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증권 마감시황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1960선 후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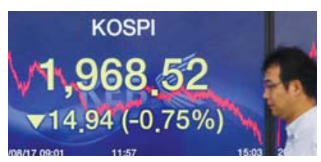
삼성전자, 신제품 효과 소멸… 연중 최저가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1960선으로 내려앉았다.

17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94포인트(0.75%) 내린 1968.52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외국인은 3211억원 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지난 5일부터 8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1548억원, 1343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하락세가 우세했다.

전기전자가 2.91% 하락했고 운수창고(-2.37%)와 의약품(-2.29%) 등이 2% 넘게 떨어졌다. 기계, 철강금속, 종이목재 등도 1% 이상 하락했다. 반면 의료정밀은 3.02% 상승했고 보험(1.14%), 전기가스업(1.32%), 화학(1.13%) 등도 올라섰다.



17일 서울 외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나타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3.16% 하락한 110만4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연중 최저치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5 등을 공개했지만, 신제품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또 최태원 회장 사면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SK(-3.86%)와 SK하이닉스(-3.39%) 등은 동반 약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한국전력(1.81%)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0.66%), 삼성생명(3.81%), 삼성에스디에스(0.76%), SK텔레콤(0.8%) 등은 상승했다.

코스닥도 1% 넘게 하락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35포인트(1.28%) 하락한 722.01을 기록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625억원, 201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은 723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SK컴즈는 2분기 실적 부진에 7.20% 빠졌으며, 파트론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 발표에 5.37% 하락했다.

/김민지 기자 minji@

현대증권 매각작업 또 미뤄지나?

현대증권 매각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현대증권 인수 후보인 일본계 사모펀드 오릭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작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오릭스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위임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계 사모펀드인 오릭스는 지난 6월 현대증권 최대주주인 현대상선으로부터 현대증권에 대한 경영권과 주식 22.6%를 65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이 마무리 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작업은 오릭스가 현대증권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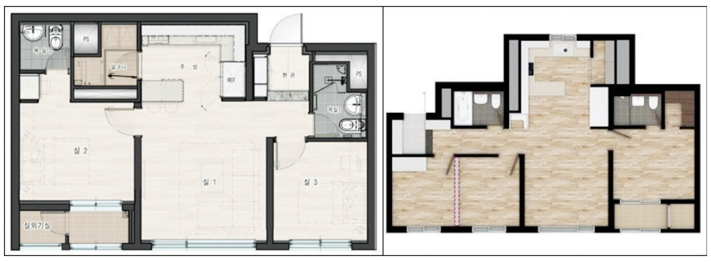
문제는 오릭스가 현대증권 인수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대증권 지분을 파는 현대상선이 총 2000억원을 투자한 것이다. 이로 인해 현대그룹이 향후 되사오기 위해 잠시 현대증권 지분을 오릭스에 맡겨 놓는 형식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를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안으로 대우증권을 반드시 팔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현대증권 매각작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수록 대우증권 매각 작업은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9월 안으로는 현대증권 매각 작업을 마무리 짓고, 10월부터 대우증권 매각 작업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민지 기자

전세난 심화… 주거용 오피스텔 인기 급증

청약통장 없어도 분양 가능
아파트보다 경쟁률 웃돌아
수천만원 프리미엄 붙기도



신영의 지웰 푸르지오 어반 전용 84㎡ A형(오른쪽)과 포스코건설의 기흥역 더샵 전용 59㎡A 오피스텔 평면도. /각사 제공

전세난이 악화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4베이(Bay) 판상형 평면 등 기존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를 갖춘 오피스텔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7일 용인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 6월에 분양한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의 전용 59㎡ 오피스텔은 최대 1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었다. 이 오피스텔은 총 994실로 아파트와 함께 대단지를 구성한다. 내부는 방 2개에 별도의 거실, 욕실, 주방 등을 갖췄다. 이는 옛 18평형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다.

또 한화건설이 지난 5월에 경기 고양시 킨텍스 부지에 분양한 '킨텍스 꿈에그린'의 전용면적 84㎡ 오피스텔은 2000만원 안팎의 웃돈이 형성됐다. 이 타입은 방 3개와 거실, 주방, 욕실 2개 등 기존 오피스텔에서는 보기 힘든 4베이 판상형 구조를 갖췄다.

신영이 지난 3월에 분양한 '기흥역 지웰 푸르지오' 오피스텔은 분양 초기에 완판됐다. 일부 로열층은 2000만~3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이 오피스텔도 침실 3개와 발코니로 구성된 아파트 복합 단지다.

대우건설이 지난 2013년에 분양한 '송파 파크하비오 푸르지오' 오피스텔도 전용면적 59㎡ 분양권에 1500만원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이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총 3282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됐다. 내부는 방 2개에 별도의 거실, 욕실, 주방 등으로 설계됐다.

이들 오피스텔은 가격면에서도 기존 아파트보다 경쟁력이 있다.

'기흥역 지웰 푸르지오'의 전용 84㎡ 오피스텔 기준층 분양가는 2억8000만원대다. 이는 인근 아파트인 기흥 더샵 프라임뷰 전용 59㎡ 시세(3억2000만원)보다 4000만원가량 저렴하다.

부동산 관계자는 "전세난의 영향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형아파트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분양권에도 웃돈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 중과세를 받지 않고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고 세입자를 위한 분양보증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았다"며 "실제사용면적(전용률)의 경우에도 기존 아파트(80%)에 못미치는 50%에 불과하는 등 기존 아파트와 다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대우건설 이라크현장 총기 난사… 韓人 피해 없어

현지 주민 채용요구 시위

이라크 남부 바스라 주(州)에 위치한 대우건설 현장사무소에 현지 주민이 침입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괴한의 총기난사로 주민 1명이 죽고 1명이 다쳤지만 한국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7일 대우건설과 주이라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간) 오후 5시쯤 알파우 주민 30여명이 현장 사무소에 침입했다. 이들은 대우건설에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스라 주 정부는 총기 난사 용의자 5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앞서 우리회사 사업장 바로 옆 그리스 방파제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일감이 없자 우리 공사장에 채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라며 "현재 대사관과 현지 당국과의 긴밀한 연락망을 갖추고 있으며 잠시 중단됐던 공사도 재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지역은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영향이 없는 남부"라며 "총기 사고는 시위와는 무관하게 부족간의 다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17일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롯데건설에 대해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제공

롯데건설, 계양산 골프장 건설 '3수' 도전

사업폐지 소송 대법원 상고

롯데건설이 '계양산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3수'에 도전한다.

17일 인천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달 28일 계양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의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송주체는 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다.

계양산은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발표하면서 골프장 건설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취임한 뒤인 2012년에 인천시는 환경이 파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골프장 건설계획을 취소했다.

이에 롯데건설은 골프장사업폐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롯데가 대법원까지 상고를 한 이유는 현재 추진 중인 공원화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교통망 풍부·인근개발 순항… 미래가치 탄탄

현대 '힐스테이트 세종 2차'
견본주택 오픈 분양 돌입
59~123㎡ 1631가구 규모

현대건설은 오는 28일 '힐스테이트 세종 2차'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종시 다정동 M4블록(2102-4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동, 총 1631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59㎡ 294가구 ▲74㎡ 139가구 ▲84㎡ 604가구 ▲98㎡ 6가구 ▲101㎡ 502가구 ▲105㎡ 10가구 ▲107㎡ 12가구 ▲113㎡ 60가구 ▲123㎡ 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힐스테이트 세종2차 투시도. /현대건설 제공

간선급행버스(BRT) 노선과 가까워 세종시 주요 지역과 근 KTX 오송역, 대전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 간선도로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당진~대전 고속도로 이용도 용이하다. 단지 반경 500m 내에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와 고등학교 1개가 예정돼 있다.

단지 내부에는 생태연못과 잔디광장, 테마정원 등 친환경 쉼터와 순환산책로, 친환경 체험시설인 텃밭 등이 조성된다. 커뮤니티시설로는 실내 골프연습장과 휘트니스센터, 사우나가 들어선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남여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 아이들과 엄마들을 위한 공간인 키즈카페와 맘스카페, 동호회실도 조성된다.

아파트 내부는 바닥충격음 완충재를 20㎜에서 30㎜로 강화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했다. 전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높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인근의 개발사업이 순항 중으로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어서 미래가치도 높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세종시 대평동 261-1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8년 3월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전 가구 4베이 판상형… 높은 천장고 개방감 극대화

GS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
84~115㎡ 268가구 규모
오는 26~27일 청약접수

GS건설은 오는 20일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

광교신도시 B1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4층, 268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84㎡ 121가구 ▲107㎡ 119가구 ▲113㎡ 26가구 ▲115㎡ 2가구 등이다.

아파트 내부는 전 가구가 4베이(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된다. 남향 위주 배치와 2.4~2.5m의 높은 천장고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최고층은 복층으로 설계돼 테라스와 다락 공간을 제공한다. 1층 하부의 지층형 테라스 세대(T1~T3)는 2.5m의 높은 천장과 전면부에 약 6m 넓이의 광폭 테라스가 제공된다.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투시도. /GS건설 제공

모든 가구에는 스마트폰 연동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집 안팎에서 불을 끄거나 켤 수 있다.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해 중앙관리실에서 각 가구의 전기·수도·가스·난방·급탕 등의 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한다.

자이원패스카드를 지니고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 있고 주차위치를 알 수 있다. 비상 시에는 방재실로 위험 상황이 통보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한 실내 골프연습장, GX(Group Exercise)룸, 샤워실 등이 조성된다.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인 광교상현IC와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를 활용하면 서울과 타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다. 오는 9월에는 이마트가 개점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수원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03-4번지 일대에 마련된다.

분양일정은 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이어 다음달 2일 당첨자 발표, 8~10일 당첨자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16년 12월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가시밭길 걷는 LG 휴대폰, 차별화만이 살길

10월 '수퍼폰' 기대감에도 경쟁력·수익성 악화 우려 디자인·UX 등 차별화 필요


LG전자 스마트폰 G4(왼쪽)와 G3. /LG전자 제공

LG전자의 휴대폰 사업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상품 경쟁력과 수익성이 모두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프리미엄 시장을 잡겠다며 출시예정인 슈퍼폰(가칭)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전자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LG전자의 휴대폰 사업은 전분기 대비 이익률이 소폭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성장 가능성에는 여전히 물음표를 달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프리미엄 제품은 물론 중저가 제품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다.

올해 2분기에 LG전자 휴대폰 사업을 맡고 있는 MC사업본부는 영업이익 2억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도 LG전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주가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 LG전자 주가는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보다 1.47% 떨어진 4만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LG전자 휴대폰 사업은 프리미엄과 중저가 제품 모두 경고음을 내고 있다. 플래그십인 G시리즈는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전자 갤럭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중저가 기기 역시 중국제품에 밀려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조성은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은) 구조적으로 미국과 내수 중심의 핸드셋 수익 기반이다. 애플의 미국 지배력과 내수 시장의 축소를 감안하면 수익 개선은 힘들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LG전자는 오는 10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 다시 승부수를 던질 예정이다. 슈퍼폰을 선보이고 아이폰, 갤럭시에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달 2분기 기업설명회에서 "하반기 초프리미엄 폰(슈퍼폰)은 디자인이나 사용자 경험 등에서 최고의 제품이 될 것이다. 프리미엄 이미지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는 슈퍼폰의 힘겨운 싸움을 예상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5·S6엣지 플러스는 물론 9월 선보일 예정인 애플 아이폰6S·6S 플러스와의 경쟁이 쉽지 않다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G전자 슈퍼폰이 시장에 늦게 나오는 만큼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애플, 삼성전자 제품과 차별화된 우위를 가리기 어려운 비슷한 사양·디자인으로 출시 될 경우 존재감이 더 미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갤노트5·S6엣지+ 출시 소식… 시장은 '떨떠름'

차별성 부재·100만원대 고가 판매 점주 "흥행 어려울 듯"


갤럭시노트5 (왼쪽)와 갤럭시S6엣지+ 이미지.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5와 갤럭시 S6엣지+에 대한 국내 휴대폰 판매점의 기대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별화된 기능 부재와 1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 때문에 시장의 호응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매점 점주들의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20일 국내 출시를 앞둔 갤럭시 노트5의 출고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작과 비슷한 가격대로 출시될 전망이다. 갤럭시노트4는 95만7000원, 갤럭시노트3·갤럭시노트2는 각각 106만7000원, 108만9000원이었다.

17일 서울시내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조 모씨는 "과거 삼성이나 LG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 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했는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후에는 프리미엄 제품보다 중저가 스마트폰이 인기다"라며 "갤럭시 노트5 갤럭시 S6엣지+는 1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 때문에 휴대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4월 출시한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는 세련된 스타일로 세간의 화제를 모으는데 성공했지만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끌어 내는데는 실패했다는게 업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오히려 비슷한 시기에 출시한 중저가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31만원대 출고가인 갤럭시 그랜드 맥스는 국내서 일평균 7000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지난달 말 기준 약 80만대 판매고를 올렸다. 또 SK텔레콤 전용폰으로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A8도 일평균 판매량에서 갤럭시S6(32G)를 제칠 정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갤럭시 노트5와 갤럭시 S6엣지+의 뚜렷한 혁신 기능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 씨는 "소비자들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증권가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하두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전자 하반기 전략 제품인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가 현존 최고의 사양을 탑재한건 사실이지만 전작과 비교해서 미세한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특별하게 보여지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2년간 일자리 3만개 만든다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발표 인턴십·직접고용·창업교육 1000억원 규모 투자하기로



사회 맞춤형 학과 현황

대상 학교	맞춤형 학과명
경북대	모바일 과정
서울대, KAIST	반도체 과정
성균관대	반도체 과정
서울대	해양플랜트 과정
서강대, 아주대, 광주과기대	금형 과정
경희대, 시립대, 서울과기대, 충북대	환경안전 과정

삼성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나선다.

삼성그룹은 향후 2년간 1000억원 규모로 총 3만명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창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직접 고용, 창업교육 확대 등 3대 세부계획으로 돼 있다.

인턴십 프로그램인 '삼성 고용 디딤돌'을 신설해 삼성 협력사 취업 희망자 3000명에게 직업훈련과 인턴십 근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자제품 영업 업무에도 인턴 2000명을 선발해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인턴십 급여는 삼성이 전액 부담한다.

반도체 평택단지, 호텔신라 면세점 등 신규 투자를 통해 2017년까지 일자리 1만개를 새로 창출해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대학 특성화 학과와 마이스터고에서 맞춤형 인력 1600명을 양성해 채용하고, 보험설계사 및 투자권유대행인 등 금융영업 분야에서도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지역 30개 대학과 협력해 5000명에게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 교육을 제공하는 등 1만1400명에게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도 제공할 방침이다.

삼성은 29개 대학, 9개 전문대와 산학 협력을 맺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금형, 플랜트, 소매유통, 환경안전 등의 분야에서 사회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오고 있다.

한편 삼성은 2014년 그룹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 확대와 고용 안정에 나서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주요 내용은 정년이 연장되는 56세부터 매년 전년도 연봉의 10%씩 감액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적용되며 기타 복리후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중동 프리미엄 브랜드샵 확대 요르단서 430㎡ 규모 오픈



LG전자가 요르단의 수도 암만 시내의 프리미엄 가전 상권인 메카 스트리트에 오픈한 프리미엄 브랜드샵 전경. /LG전자 제공

LG전자가 중동 지역에 프리미엄 브랜드샵을 잇달아 오픈하면서 시장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이란(테헤란), 레바논(베이루트)에 이어 최근 요르단에도 프리미엄 브랜드샵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LG전자가 요르단 수도 암만 시내의 프리미엄 가전 상권인 메카 스트리트에 오픈한 프리미엄 브랜드샵은 요르단 내 브랜드 매장 중 최대규모인 430㎡다.

이 매장은 65인치 울트라 올레드 TV, 105인치 곡면 울트라HD TV, 더블 매직스페이스 냉장고, 19kg 대용량 드럼세탁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G4 등 LG전자의 최신 프리미엄 제품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명품관'이다. LG전자는 향후 중동아프리카 주요 국가에 프리미엄 브랜드샵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조한진 기자

저비용항공사, 실적 개선에 줄상장 추진

제주항공·에어부산 이어 이스타항공도 가세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영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잇따라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에 이어 이스타항공이 가세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은 국내 첫 LCC 상장사를 목표로 코스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올 하반기 IPO(기업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NH투자증권을 단독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심사청구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영업실적 고공비행은 상장 과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올해 상반기 매출 2867억원, 영업이익 306억원, 당기순이익 323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21.79% 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7배, 6배 넘게 불어난 규모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난 한 해 실적(영업이익 295억원, 당기순이익 320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국내 LCC 최초로 매출 5000억원을 넘어선 바(5106억원) 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은 내년 사옥 건립과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항공 보잉 737-800 여객기.

에어부산은 내년 하반기까지 김해공항 인근에 사옥을 완공해 직원들의 업무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지난주 에어부산은 부산 대저2동 소재 9층 건물을 사옥으로 사들였다.

거래상대방은 계열사 금호산업과 주주사 동일 2곳이다.

취득가액은 330억원으로 자산총액 대비 23.5% 규모다.

올해로 계획했던 상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산업 인수 후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IPO를 거쳐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매출 3509억원, 영업이익 204억원, 당기순이익 174억원의 실적을 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6.26% 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배가량 급증했다.

이스타항공도 LCC 상장 대열에 합류했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상반기 KDB대우증권으로부터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 받고 상장 준비에 들어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연중 LCC 수요가 가장 많은 3분기에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연내 계획하고 있는 상장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기아차, 스포티지 후속 신차 렌더링 공개 기아자동차는 9월 출시하는 스포티지(프로젝트명 QL) 후속모델의 렌더링 이미지를 17일 공개했다. 기아차는 스포티지 후속모델의 디자인 키워드를 '스포티&파워풀 에너지(Sporty & Powerful Energy)'로 잡았다. 혁신적인 조형과 풍부한 볼륨감을 바탕으로 기존 모델에 비해 한층 강인하고 진보적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스타일을 구현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기아차 제공

한상범 "미래 이끌 OLED에 10조 투자"

LGD, LCD 생산 20주년

미래 시장 청사진 제시 OLED로 경쟁우위 지속

LG디스플레이(대표이사 한상범·사진)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중심으로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7일 경기도 파주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열린 'LG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LCD) 생산 20주년 기념 전략 발표회'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LG디스플레이의 한상범 사장과 여상덕 OLED사업부장(사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LG디스플레이가 LCD를 생산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의 미래는 OLED가 이끈다.

이날 한 사장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OLED를 선정하고 이를 육성해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G디스플레이는 2018년까지 LCD 분야 포함, OLED를 중심으로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 LCD 시장은 성숙기를 지나 성장속도가 점차 더뎌지고 대만·일본·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G디스플레이는 LCD 대비 화질과 디자인 측면에서 앞서고 투명과 플렉서블 등 미래 디스플레이 제품 구현에 최적의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OLED를 통해서 경쟁에서 우위를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OLED 시장 전망도 밝다.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87억 달러 규모의 OLED 시장은 2022년에 28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LG디스플레이는 OLED의 기술 진입장벽이 높아 한국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이 양산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OLED로 중국과 같은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린다는 복안이다.

또한 LG디스플레이는 고객사와 장비·소재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OLED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OLED 사업군 모두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대형 OLED에서는 월페이퍼 디스플레이와 투명 TV 등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지배력을 강화해 신시장을 창출, 중소형 OLED에서는 플렉서블 OLED에 집중해 웨어러블 시장에서 1등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자동차용·폴더블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미 LG디스플레이는 대형·플렉서블 OLED 생산을 위해 수 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한 사장은 "LG디스플레이의 이번 전략방향 결정은 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물론 고용창출에 따른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LG디스플레이는 OLED 사업을 성공시켜 디스플레이 강국의 위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은정 기자 eunj71@

크라이슬러 200C, 36개월 무이자 할부

내달 말까지 프로모션 제공

FCA 코리아(대표 파블로 로쏘)는 9월 말까지 중형 세단 크라이슬러 200C 모델 구매 고객에게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200 리미티드 모델 구매 고객에게는 최초 등록 고객에 한해 엔진오일 및 필터, 엔진 에어클리너 필터, 에어컨 필터에 대해 평생 무상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금융 프로모션으로 크라이슬러 200C 구매 고객은 선수금



40%를 납부하면 36개월 동안 이자 비용 없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기존 FCA 코리아의 고객이 크라이슬러 200C 및 200 리미티드 모델을 구매하는 경우 차량 가격의 2%를 추가로 할인받는다. /이정필 기자

현대차 '푸른나라 그림대회' 예선 진행

현대자동차는 환경보전협회와 공동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 28회 대한민국 어린이 푸른나라 그림대회 예선을 17일 시작했다.

이날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하는 예선대회 주제는 환경의 날 20주년을 기념한 '생물자원보호, 미래를 위한 배려'다.

유치부는 '지구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 그리기', 초등부 저학년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미래세상 상상해 그리기', 초등부 고학년은 '환경보호를 위한 미래형 자동차 그리기'로 각각 정했다.

참가 방법은 키즈현대 사이트(http://kids.hyundai.com)에서 참가 신청 후 접수증을 출력, 출품작과 동봉해 전국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에 방문 접수하거나 푸른나라 그림대회 사무국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키즈현대 사이트나 푸른나라 그림대회 운영 사무국(02-3141-7908)으로 하면 된다. /이정필 기자


당신의 화장대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
화장대를 부탁해
8월 20일 |목| 밤 9시
첫방송
SUN DAY CREAM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FashionN

최태원, 반도체 분야 46조 투자 검토

최 회장 참석 'SK그룹 확대 경영회의' 개최
에너지화학 등 투자확대 방안도 주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투자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는 등 SK그룹의 경영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영공백을 해소한 SK그룹은 관계사별로 대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서린동 SK사옥에서 열린 SK그룹 '확대 경영회의' 자리에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관점에서는 현 경영환경의 제약요건에서 과감히 탈피해 선제적으로 투자시기를 앞당기고,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격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 외에 에너지화학과 정보통신 분야도 빠른 시일내에 투자확대 방안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며 강한 공격경영 의지를 보였다.

최 회장과 수펙스추구협의회 전 멤버가 참여하는 확대 경영회의는 SK그룹이 '따로 또 같이 3.0' 체제를 출범한 뒤 처음 개최되는 것이다. SK그룹 측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설명해 투자의지가 확실함을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SK 본사 건물로 출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어려울 때 기업이 앞장서서 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계획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로 대기업이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며 투자확대를 강조했다. 또 디딤돌과 비상 프로그램 같은 혁신적인 청년일자리 조기정착과 확대도 주문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광복 70년에 내가 (사면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온 선배세대와 국가유공자,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기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SK가 나름 노력을 해 왔지만 자성할 부분도 있다. 이와 관련한 대안을 같이 고민하자"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펙스추구협의회 7개 위원회 위원장들은 위원회별로 경제활성화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SK그룹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현재 건설중인 공장의 장비투자와 2개의 신규공장 증설 등에 46조원 투자 방안을 검토 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 경영, 사회 공헌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의 추진 계획을 세웠다. SK그룹은 이번 확대 경영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안별 구체적인 실행안을 만들어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확대경영 회의엔 최 회장을 비롯해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수펙스협의회 산하 정철길 전략위원장(SK이노베이션사장), 하성민 윤리경영위원장 등 7개 위원회 위원장,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조대식 SK㈜ 사장 등 17개 주요 관계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해 그동안 침체된 투자와 경영전략 등을 논의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대한항공, 강원도 춘천서 해비타트 집짓기 봉사활동 대한항공은 17~20일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에서 진행되는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활동은 비용 문제 등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로 설계와 노동을 통해 집을 지어주는 세계적인 공동체 봉사 프로그램이다. /이정필 기자

SK그룹,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

청년 고용 확대… 하반기 공채도 확대 전망

SK그룹 모든 계열사에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SK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데 이어 청년 고용 확대·고용 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나머지 계열사들도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이미 계열사의 9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할 예정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거의 완료 단계다.

SK 측은 "이미 주력 계열사들이 임금피크제를 완료한 상황이며 나머지 작은 계열사들도 정년 연장과 단협 등을 통해 올해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은 수펙스추구협의회 소속 17개사 모두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완료했으며 SKC 계열과 워커힐도 수년 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새로 SK그룹에 편입된 계열사나 일부 소형 계열사만 동참하면 그룹 전체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SK그룹은 다수의 계열사가 고령자법 개정 전부터 이미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었다. 정년 60세 미만인 회사는 고령자법 개정을 전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었다.

SK이노베이션과 SK네트웍스, SK C&C 등은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고, SK텔레콤은 59세부터, SK하이닉스는 58세부터 매년 연봉을 전년보다 10% 줄여 책정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특정 연령부터 통상임금을 삭감,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총액이 늘지 않게 조정하는 것이다.

SK그룹은 정부의 청년 고용난 해소에 부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공채 인력도 늘릴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지난해 신입 및 경력사원을 포함해 7700여명을 채용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1000여명을 신입 공채했다. 올 하반기 신입 공채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SK그룹은 내년부터 '고용 디딤돌'과 '청년 비상(飛上)' 프로그램을 통해 4000명의 인재를 육성하고 2만명의 창업교육을 지원해 미국 실리콘밸리까지 진출시키겠다는 계획도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한진 기자

SKT, IoT 생태계 활성화 앞장

'IoT 해카톤' 대회 개최

SK텔레콤이 국내 사물인터넷(Io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모델을 선보였다.

17일 SK텔레콤은 글로벌 모바일칩 설계업체인 ARM 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IoT 해카톤(Hackathon)' 대회가 15일부터 이틀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해카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 동안 해킹을 하는 프로그램 마라톤을 말한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19 팀은 비를 감지하는 숙면 최적화 알람 장치, 스마트 창문, 자전거 도난방지 시스템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각양각색의 사물인터넷 시제품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선보였다.

지난 16일 장동현 대표가 직접 참가한 시상식에서 '맘마미아'팀의 'IoT 수유도우미'가 대상을 차지했다. 이 팀은 수유 시간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우유 온도를 수유에 맞는 온도로 조정해 주면서 정보를 빅데이터화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를 넘어 3D 프린터를 통한 시제품 제작과 실제 구동 앱을 선보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16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사물인터넷 해카톤' 대회에서 현장을 찾은 장동현 SK텔레콤 CEO가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장 대표는 시상식에 앞서 발표회에 참가해 참가팀들의 아이디어를 꼼꼼히 살펴보고 난 후 축사를 통해 "참가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수준 높은 아이디어에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 SK텔레콤은 새로운 IoT 시장 창출과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hm0108@

갤노트5·갤S6엣지+ "직접 사용해 보세요"

이통3사, 사전 체험 공간 마련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체험공간을 17일 일제히 오픈했다.

SK텔레콤은 전국 직영 대리점에서 두 제품의 성능과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체험존'을 운영한다. 노트5와 엣지플러스 사전체험 매장의 위치는 온라인 T월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는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와 전국 321개 매장에서 두 제품을 공개한다. 단말기를 사용해보고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린 소비자 601명에게 갤럭시노트5, 외식 상품권 등 경품을 준다.

LG유플러스도 서울 강남역 직영점을 비롯해 국내 300여개 매장에서 두 제품을 전시한다. 25일까지 단말기를 구입하면 2만원 상당의 'LTE 비디오포털' 서비스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동통신사들이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를 예약 판매하는 대신 체험 공간을 연 것은 출시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일정이 촉박해 예약 구매자를 모집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0일 국내에서 두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삼성 페이'의 국내 상용화와 시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정문경 기자



17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직영 대리점에서 사내 홍보 모델이 SK텔레콤의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 체험 공간을 선보이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위메프, 1000억 투자유치

창업자 허민과 엔스씨 김정주 인연이 한 몫해
"인재영입·시스템개선 가속화 등에 투자할 것"



쿠팡·티몬에 이어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10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위메프는 17일 엔엑스씨로부터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을 통해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인 엔엑스씨 측은 위메프가 2014년 1조6000억원의 거래액을 달성하고 올해도 상반기 성장률 60%를 보이는 등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메프는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인재영입·시스템개선 등을 가속화해 고객과 파트너사의 쇼핑과 업무 경험을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투자유치를 받은 쿠팡과 티몬이 물류에 투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1000억원의 투자 유치는 이미 업계에서 돌고 있었지만 위메프는 그동안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기 꺼려했었다.

업계는 엔엑스씨의 이번 투자 유치를 두고 위메프 창업자 허민(사진)과 엔엑스씨 김정주 대표의 인연이 한 몫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민 창업자는 2001년 게임제작사 네오플 설립 후 2005년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를 출시해 큰 성공을 거뒀다. 이후 허민은 2008년 네오플을 넥슨에 매각했다. 당시 허민의 네오플을 인수한 넥슨의 창립자가 현 엔엑스씨의 대표 김정주다.

당시 넥슨은 네오플을 3000억원에 인수해 네오플의 게임 던전앤파이터를 선두로 승승장구 했었다. 현재 중국 매출의 35%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다. 이미 허민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는 김정주 대표에게 허민의 위메프는 두 번째 성공의 발판으로 느껴질 수 있다.

위메프 박은상 대표는 "장기적 투자 관점을 가진 엔엑스씨가 투자자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엔엑스씨는 당사의 경영 방향을 잘 이해하는 투자자다. 위메프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투자 외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매출 1258억원을 기록했으며 29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11번가 '한샘 브랜드딜' 패키지 특가판매



11번가(대표 서진우)는 이달 24일까지 한샘 인테리어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한샘 브랜드딜'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한샘 수납장, 주방·욕실 시공 패키지 등을 하루 동안 특가에 판매하는 '원데이 상품'을 선보인다. 17일에는 '샘키즈 수납장'을 11% 할인된 15만9000원에, 18일에는 '리치 스페셜 주방 시공 패키지'를 19% 저렴한 189만3000원에 판매한다.

이어 '라이트 욕실 시공 패키지'(19일), '유로 8000 주방 시공 패키지'(21일) 등을 11번가가 단독 판매한다. /김성현 기자

뛰어난 내구성의 '샘스틸 책상' 출시



한샘(대표 최양하)은 자체운영 쇼핑몰 한샘몰을 통해 '샘스틸 책상'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한샘 측에 따르면 샘스틸 책상은 LPM(Low Pressure Melamine·저압 합침지) 강화 코팅을 적용해 생활 스크래치나 오염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

한샘은 샘스틸 책상 출시를 기념해 이달 27일까지 사전판매를 진행한다.

사전판매 기간 동안은 32%할인된 8만9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김성현 기자

故 이맹희 CJ 명예회장 20일 발인

시신 서울도착 오늘부터 조문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사진)의 영결식이 20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린다.

CJ그룹은 이 명예회장의 빈소가 18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돼 이날 오전 9시부터 조문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장례식은 이채욱 CJ주식회사 대표를 장례위원장으로 CJ그룹장으로 치러진다. 7일장이며 발인은 20일 오전 7시에 있을 예정이다.

이 명예회장의 시신은 이날 오후 항공편으로 서울에 도착했다.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내외와 손경식 회장이 가족 대표로 중국에서부터 운구를 진행했다.

이날 손경식 CJ 회장은 유가족을 대표해 "이 명예회장은 주무시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모시고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향년 84세 일기로 영면했다"며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유서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지지만 고통없이 가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삼성가에서 연락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방금 북경에서 왔다"며 대답을 피했다.

한편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부친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해 상주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 측이 이날 오전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추석 상품권 패키지 구매하세요" 현대백화점(대표 김영태)은 추석을 앞두고 17일부터 전국 14개 점포에서 추석 상품권 패키지를 판매한다. 패키지는 구매고객이 원하는 대로 금액권을 골라서 구성할 수 있다. 27일부터는 고객이 200만~3000만원 이상 상품권 구매 시 금액대에 따라 구매금액의 0.5%부터 최대 3%에 달하는 상품권을 증정한다. /뉴시스

현대百, 순환출자고리 해소에 최소 6100억원 든다

CEO스코어 분석
고리 핵심은 '그린푸드'

현대백화점그룹(회장 정지선)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는 데는 최소 6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모두 3개로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이들 고리를 해소하는 데는 6106억원이 든다. 이 비용은 각 기업의 지분 가치가 지난 5일 종가 기준 주가으로 적용됐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현대쇼핑→현대그린푸드▲현대에이앤아이→현대백화점→현대쇼핑→현대그린푸드→현대에이앤아이▲현대에이앤아이→현대백화점→현대쇼핑→현대에이앤아이 등 모두 3개의 고리로 엮여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총수 일가가 (주)현대백화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그린푸드와 현대에이앤아이 등 2개 계열사의 지분을 사들일 경우 대부분의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은 현대그린푸드다. 현대그린푸드가 보유한 (주)현대백화점 지분은 12.05%로 지분 가치는 4497억원이다. 전체 비용의 73.6%에 해당한다. 현대에이앤아이가 보유한 (주)현대백화점 지분(4.31%) 가치는 1609억원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

엠비오, 근거리 무선통신 액세서리 선봬



제일모직(패션부문 대표 윤주화)의 남성복 엠비오가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액세서리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액세서리는 NFC 태그와 스마트폰의 앱의 연동형 모델로 목걸이형 아이디 케이스, 명함 지갑, 반지갑, 다이어리 등으로 공개된다. NFC가 지원되는 스마트폰과 한번의 터치만으로 모바일 명함을 전송할 수 있다.

갑작스런 고객의 방문이나 비즈니스 미팅시 명함을 챙기지 못했어도 엠비오 스마트 액세서리만 가지고 있으면 명함을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다. 사전에 앱에 등록해 논 모바일 명함을 스마트 액세서리와 상대방 스마트폰의 터치만으로 손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의 터치만으로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매번 스마트폰의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 반복된 작업을 하기 보다는 스마트폰 환경을 사전에 앱에 등록해 두고, 간단하게 스마트 액세서리와 터치를 하면 '바로가기' 설정이 된다. 한편, 액세서리 시장은 하반기 약 10%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박상길 기자



'풍성한 선물세트로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협유통은 사과, 한우, 굴비 등 약 100종을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 사전예약으로 판매한다. 사전예약 최대 30% 특별할인, 최대 200만원 상품권 증정, 덤 증정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농협유통 제공

락앤락, 새 광고모델로 백종원 발탁



락앤락(대표 김준일)이 요리연구가 백종원을 모델로 발탁하고 '백종원의 락앤락 레시피'라는 주제로 온라인 디지털 광고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디지털 광고는 락앤락 쿡웨어 하드앤라이트 프라이팬, 스피드쿡 라면냄비, 내열유리 밀폐용기 락앤락 오븐글라스, 비스프리 김치통 등 총 4가지 주력제품 군을 활용해 요리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광고 영상은 락앤락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고 론칭을 기념해 백종원 계량컵, 레시피 다이어리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수정 기자

애경, 선물세트 쇼핑몰 '마음가게' 오픈

애경(대표 고광현)이 선물세트 온라인쇼핑몰 '마음가게'를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음가게에서는 명절이나 기념일, 생일은 물론 의미 있는 답례품이 필요한 돌잔치, 결혼식 등에 차별화 된 디자인과 다양한 구성을 통한 맞춤형 선물세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음가게는 DIY(Do It Yourself)를 콘셉트로 받는 사람의 취향과 선물의 의미를 고려한 맞춤형 선물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김수정 기자

레드페이스, F/W시즌 정우성 화보 선봬

아웃도어 브랜드 레드페이스(대표 유영선)가 17일 전속모델 정우성의 가을겨울시즌(F/W) 화보를 공개했다.

레드페이스의 F/W 제품은 아웃도어의 본질인 기능성에 충실하면서 캐주얼과 스포티 감성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레드페이스는 이번 시즌 자체기술로 탄생한 콘트라텍스 소재로 제작된 등산화와 히트패딩재킷, 구스다운 등을 선보인다. /박상길 기자

'보헴시가 슬림핏' 한정판 출시



KT&G가 패션 브랜드 플랙(PLAC)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롭게 디자인한 '보헴시가 슬림핏(BOHEM CIGAR slim fit)' 한정판을 17일 출시했다.

플랙은 슬림핏 청바지로 유명세를 타며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떠오르고 있는 컨템포러리(contemporary) 캐주얼 브랜드이다. /정은미 기자

밀레, 네팔 지진피해 자선바자회 개최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대표 한철호)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상암문화광장에서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 네팔 지진피해 돕기 자선바자회 '희망 마켓'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희망 마켓에서는 밀레와 엠리밋을 비롯해 이탈리아 캐주얼 브랜드 나파피리 등의 이월 의류·용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박상길 기자

生냉면 격전, 강자는?

풀무원 vs CJ제일제당 시장조사기관 1위 엇갈려

닐슨 조사 1위는 '풀무원' 링크아즈텍은 'CJ제일제당'



사진 왼쪽부터 풀무원식품 '평양물냉면'과 '함흥비빔냉면', CJ제일제당 '동치미 물냉면'과 '함퓽비빔냉면'

풀무원식품(대표 이효율)과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 생냉면 시장 1위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다.

생냉면류는 상온 보관 전용의 건면이나 라면류를 제외한 물냉면, 비빔냉면, 밀면, 쫄면 등 차갑게 먹는 생면류를 말한다. 올해 시장규모만 약 3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7일 풀무원식품은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 기준으로 올 상반기(1~6월) 생냉면류 시장에서 점유율 30.7%를 기록하며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올 상반기 전체 생면시장의 30.2%를 점유, 308억원을 판매했다. 이는 2위인 CJ제일제당보다 6.8% 포인트 앞선 수치다.

풀무원 관계자는 "업계 최저 나트륨 함량의 물냉면과 메밀 함량을 높인 메밀생면, 쌀로 만든 물비빔면 등 다양해진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은 시장조사기관 링크아즈텍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생냉면시장 1위라고 반박했다.

링크아즈텍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생냉면류 시장에서 CJ제일제당의 시장점유율은 32.2%로, 풀무원 28.9% 보다 3.3% 포인트 앞선다.

CJ 측에 따르면 더위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생냉면 판매가 늘면서 31.6%의 시장점유율로 처음으로 시장 1위로 올라섰다. 이후 5월부터는 경쟁사인 풀무원과 격차를 5% 포인트 이상 벌리며 3개월 연속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생냉면류 시장에서 CJ의 제품 가지 수가 풀무원 등 경쟁사보다 적지만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냉면 제품 누적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이상 성장할 정도로 좋은 반응 속에 업계 1위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풀무원 관계자는 "똑같은 시장조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닐슨의 규모가 크고 공식력이 있다"면서 "CJ제일제당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조사기관 업체마다 유통 채널과 소비자 패널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결과 역시 다르다 보니 업체들도 유리한 조사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의 '아픈손가락'… 에뛰드

2분기 나홀로 적자 전환 브랜드 재정비 작업 단행

에뛰드하우스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서경배(53·사진)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표 교체와 브랜드 구조조정이라는 카드를 내놨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에뛰드하우스 신논현 플래그십스토어.

17일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따르면 주요 계열사 에뛰드는 올 2분기 1억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하락했다. 2분기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전 계열사가 견고한 실적을 낸 가운데 에뛰드 홀로 실적이 역행한 것이다. 에스쁘아도 2분기에 적자를 냈지만 올 1월 에뛰드에서 분사된 이후 적자폭을 줄여가고 있다.

에뛰드는 독보적인 공주풍 콘셉트로 10~20대 젊은층에게 인기를 누렸지만 현재 후발주자인 이니스프리에게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뒤지고 있다.

2010년 837억원이었던 이니스프리 매출은 지난해 4567억원으로 5년 새 400% 이상 뛰었지만 에뛰드는 같은 기간 매출이 1617억원에서 2810억원으로 늘며 74% 성장에 그쳤다.

이니스프리가 제주도를 제품과 브랜드 콘셉트에 엮어 국내는 물론 해외 소비자까지 끌어들이는 동안 에뛰드는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이 같은 에뛰드의 부진은 2005년 출시한 콜라겐 크림과 같은 히트 상품이 최근 몇 년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또 색조 위주로 운영했던 것도 독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히트 상품이 없으면 지점당 매출이 떨어지고 브랜드 전체의 매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해외 브랜드는 물론이고 아모레퍼시픽 브랜드들도 색조 제품을 내놓고 있어 색조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뛰드는 서경배 회장이 설화수·라네즈·마몽드·이니스프리와 함께 5대 글로벌챔피언 브랜드로 꼽는 만큼 애착을 갖고 있다. 이에 그룹 차원에서 마케팅 투자를 확대하는 등 브랜드 재정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권금주 대표가 수장을 맡은 이후로 브랜드 구조조정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권 대표는 이니스프리·라네즈·마몽드 등 아모레퍼시픽 내 다양한 브랜드의 부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해 1분기 608개였던 국내 매장 수를 올 2분기 509개로 100개 가까이 줄였으며 제품과 마케팅 재정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해외 쪽은 에이전트를 끼고 전개했던 매장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앞으로 로드숍 중심으로 전개하기 위해 마트 입점 매장을 대거 정리했다"며 "주요 고객인 20대가 공주풍 콘셉트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품 개선과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ksj0215@

깊이별 맞춤 시술… 귤피부도 꿀비부 변신

여드름흉터 치료 팁

여드름은 생기고 없어지지만, 여드름 흉터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평생 남는다. 치료도 쉽지 않다. 여드름흉터는 '빙산의 일각'같아서 보이는 것보다 피부 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다. 따라서 환자들은 1~2회 치료로 효과가 약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흉터의 깊이에 따라 적절한 시술을 받는다면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남은 여름방학과 휴가를 이용해 여드름흉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세스타피부과 김영구 원장(피부과 전문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여드름흉터는 여드름이 생겨 연약해진 부위를 손으로 뜯거나 강한 압력을 줘 그만큼 피부 조직이 떨어져 나간 상태다. 문제는 여드름흉터가 각각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 각각으로 패여 있는 여드름흉터에 똑같은 치료법을 사용하면 효과는 작을 수밖에 없다.

깊은 흉터 – 서브시전
흉터 밑 섬유화조직 잘라 패인곳 콜라겐 생성 유도

얕은 흉터 – 인트라시전
흉터 가장자리 미세하게 깎아 피부결 개선·피부 재생 도와

여드름흉터는 깊이에 맞게 단계적으로 알맞은 시술법을 적용하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다. 깊이에 따라 서브시전(subcision)과 인트라시전(intracision)을 적용하면 효과적이다.

깊은 여드름 흉터에 외과적 절제와 같은 수술을 적용할 경우 이차적 수술흉터가 남을 수 있다.

진피 끝까지 상처가 생긴 아주 깊은 여드름흉터는 서브시전(subcision, 진피하절제술)으로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여드름흉터 아래쪽에는 상처가 생기며 비정상적으로 생긴 섬유화된 흉터 조직이 형성된다. 서브시전은 흉터 밑 섬유화 조직 부위를 바늘로 잘게 잘라, 패인 빈 공간에 자연스럽게 혈액이 채워지고 그 혈액이 흡수되면서 새로운 콜라겐이 생성하고 흉터가 차오르도록 돕는 방법이다.


여드름흉터 환자에게 서브시전을 시행하고 있다. /연세스타피부과 제공

시술 후에 일시적으로 약간의 멍이 생길 수 있으나, 당일 세수나 화장 등이 가능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한편 얼굴 전체적으로 깊은 여드름흉터가 많은 경우 레이저 박피술, 화학 박피술을 함께 적용하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비교적 얕은 여드름 흉터는 서브시전을 변형한 인트라시전(intracision, 진피내 절제술)을 이용해 치료할 수 있다. 시술 방법은 서브시전과 같은 원리지만, 흉터 깊이에 맞춰 정확히 조절하고 찍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레이저 시술과 병행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인트라시전 치료 후에는 2940㎚ 어븀야그 레이저로 흉터 가장자리를 미세하게 깎아주면 피부결 개선과 피부 재생을 함께 유도할 수 있다.

치료 후 홍반, 외피손상과 더불어 약간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게 한 주 동안 지속된 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개선효과도 빨리 나타난다. 인트라시전과 레이저 복합 치료 방법은 여드름흉터뿐 아니라 수두흉터나 사고흉터 등 각종 함몰된 흉터에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 다양한 치료방법으로도 성과가 없었던 여드름 흉터 환자의 경우 서브시전과 인트라시전을 흉터 깊이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다양하게 패인 흉터의 깊이를 조절하며 치료해야 하는 정교한 시술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찾는 것이 안전성과 효과를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 도움말 : 연세스타피부과 김영구 원장 (피부과 전문의)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밀라노 엑스포서 휘날린 韓·伊 국기

광복 70·수교 131주년 기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4일 '2015 이탈리아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에서 광복 70주년과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31주년을 기념하는 관람객 이벤트를 열었다.

1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광복 70주년과 한국·이탈리아 수교 131주년의 의미를 엑스포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알리고자 개최됐다. 한국관 관람객들은 양 국가의 대형 국기 판넬에 스티커를 붙여 국기를 완성하는 행사에 참여했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두 명에게는 한국 왕복항공권이 증정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4일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에서 광복70주년 및 한·이 수교 131주년 기념 이벤트를 개최했다. 한국관 관람객들이 양 국가의 대형 국기 판넬에 스티커를 붙여 국기를 완성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2015 밀라노 엑스포'는 지난 5월 1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인류의 먹거리를 주제로 열리고 있다. 한국관은 '한식'을 주제로 한 인상적인 미디어예술 전시와 '조화, 치유, 장수'의 주제를 밥상에 담아 선보이는 한식 레스토랑 운영으로 현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치선 기자

광동제약 '청소년 DMZ 평화생명캠프' 성료

광동제약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30명에게 지난 7일~10일까지 DMZ(비무장지대) 일원과 임진강, 파주, 철원, 양구 지역에서 '제 3회 청소년 DMZ 평화생명캠프'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소년 DMZ 평화생명캠프'는 남한 국토의 양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와 DMZ를 연결함으로써 자유와 평화, 그리고 생명의 의미를 되새겨본다는 의미로 2012년부터 광동제약이 주최하고 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인솔 교사들과 함께 DMZ 전시관 관람을 했다.

이어 철원 옛 시가지 방문, 대암산 용늪 생태 탐방, 우리들의 DMZ 청사진 발표 등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캠프에 참가한 제주고 김아름 학생은 "제주도에서 올라와 DMZ 지역을 직접 보니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통일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치선 기자



광동제약은 지난 7일~10일까지 '제 3회 청소년 DMZ 평화생명캠프'를 진행했다.

"클래식 공부 안 늦었어요"

방통대 프라임칼리지
콘서바토리 과정 개설
내달 18일까지 모집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이하 방송대)는 콘서바토리 음악교육 과정을 신설, 오는 9월 18일까지 피아노 페다고지 과정과 성악 입문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프라임칼리지는 그간 성인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개인의 역량 강화와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처음 개설된 콘서바토리 과정은 클래식에 대한 중·장년층의 높은 관심에 비해 이론과 실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장소는 한정돼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또한 저렴한 수강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학습자에게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 활용을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모집 과목은 피아노 페다고지 과정과 성악 입문과정으로 나뉜다. 오페라의 대중화를 이끈 카르테 오페라단 안성민 단장과 분야 전문가가 함께 피아노 이론과 테크닉 교수법, 성악 발성 원리와 가창 발표 등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선보일 예정이다.



클래식에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설계과정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에서 접수 신청을 받는다.

프라임칼리지의 김영인 학장은 "그동안 클래식 분야는 고비용의 대학 정규과정과 입시학원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실용적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흐르는 추세"라며 "프라임칼리지는 음악교육과 성악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들에게 체계적이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콘서바토리 교육과정을 제공해 문화예술 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현명 기자 hmbok@

star bag



日 열도 사로잡아

힙합 그룹 **에픽하이**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일본 오사카와 도쿄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 서머소닉 2015(Summer Sonic 2015)에 출연했다. 일본에서 발표한 첫 베스트 앨범을 중심으로 열띤 공연을 펼쳤다.

첫 소극장 공연 마쳐



가수 **백아연**이 지난 16일 첫 소극장 단독 공연 '소곤소곤 첫 번째 이야기'를 성황리에 마쳤다. 2주 동안 총 6회에 걸친 공연을 통해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뮤지션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김조한의 신인 걸그룹

김조한이 프로듀싱을 맡은 신예 걸그룹의 이름이 **유니콘**으로 결정됐다. 유니콘은 17일 오전 10시 네이버TV 캐스트를 통해 첫 공개된 웹트콤(웹드라마+시트콤) '나는 걸그룹이다'로 본격 데뷔에 나섰다.

2년여 만에 신곡 발표



가수 겸 배우 **김형준**이 2년여 만의 신곡인 '크로스 더 라인(Cross the Line)'을 17일 정오 발표했다. 신예 작곡가 에스비(ESBEE)의 곡으로 힙합 듀오 이루펀트 멤버 키비가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멤버 재정비해 컴백

보이그룹 **비트윈**이 5인조로 팀을 재정비하고 오는 27일 컴백한다. 소속사 에렌 엔테터인먼트 측은 "비트윈이 오는 27일 첫 번째 미니 앨범을 들고 컴백한다"고 17일 전했다. 26일 쇼케이스를 통해 첫 무대를 보인다.

"저와 심리게임 하실래요?"



마술사 최현우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멘탈 매직'으로 세계 마술계를 리드하는 마술사가 있다. 최현우(37). 그는 국내 첫 카드마술 소개, 클로즈업 마술의 1인자, 국제 마술올림픽 클로즈업 부문 한국인 최초 수상자, 국제 마술대회 FISM월드챔피언십 최연소 심사위원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 붙는 마술사다.

최현우는 고교시절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마술쇼를 보고 흥분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술에 관심을 가졌다. 가벼운 마음으로 마술을 시작했지만 접할수록 이 세계에 빠져들며 프로 마술사가 돼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러나 부모님은 숫기 없이 얌전하게 공부만 하던 모범생 최현우가 마술사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부자의 인연을 끊자"는 이야기까지 했다. 결국 최현우는 마술을 배우기 위해 집을 나왔다.

"4년간 국내 1호 마술사인 이흥선 선생님 집에 기거하며 마술을 배웠어요. 소림사 영화처럼 처음에는 정말 청소만 했죠. 의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였어요. 많은 제자들 중 선생님은 제가 가장 먼저 그만둘 거라고 하셨지만 선생님 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배웠고, 지금까지 마술을 하고 있네요."

최현우가 마술계에 입문할 당시에는 비둘기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통 안에서 사람을 자르는 스테이지 마술 등이 대세였다.

"선생님 공연을 객석에서 보고 있는데 제 뒤에 있던 관객들이 '비둘기 참 빨리 꺼내네'라며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순간 '아! 관객들도 마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고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부터 관객이 예측할 수 없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마술을 해보자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한 것이 사람과 일대일로 마주하며 카드로 펼치는 클로즈업 마술이었다. 이어 사람의 심리를 읽고 이를 마술로 연결하는 멘탈 매직을 연구했다.

"마술계에는 십계명으로 불리는 '서스톤 3원칙'이 있죠. 비밀을 알려주지 말 것, 결과를 알려주지 말 것, 같은 기술을 같은 사람에게 두 번 보여주지 말 것이죠. 하지만 전 이 3원칙을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결과를 미리 알려 주는 방식의 마술을 선호하죠. 관객들은 순간 제 마술을 보고 놀란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토론을 해요. 그게 제가 의도하는 바죠."

최현우는 현재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매직콘서트 '더 브레인'을 공연중이다. 세계적인 마술 트렌드인 멘탈 매직을 직접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무대다. 멘탈 매직은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내는 심리학과 마술이 절묘하게 조합된 고도의 기술이다. 영화 '나우 유 씨미: 마술사기단'에서 멘탈 스틸러인 우디 해럴슨이 사용한 마술로 국내 관객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착시효과를 이용한 옵티컬 마술, 예언 마술, 일루전 마술에서 더 발전시켜 관객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물체를 무대 위에 등장시키는 대형 마술을 선보인다. 단순히 트릭과 장비를 활용한 마술이 아닌 사람의 심리와 과학과 트릭이 혼합된 마술쇼다. 대형 헬기가 무대 위에 등장하고, 관객들의 반응을 담아내는 드론 촬영, 관객들의 스마트 폰을 제어하는 스마트폰 마술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공연을 위해 3년간 준비했어요. 관객과 심리게임에서 이기려면 완벽한 계산과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KBS1 TV에서 일요일 오후 방송되는 과학교양 프로인 '장영실쇼'의 PD가 제 공연을 보고 출연을 요청해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 분도 제 마술을 과학이라고 인정한 거죠."

최현우는 일상의 모든 시간을 마술과 보낸다. 마술을 생각하고 손이 녹슬지 않도록 기술을 연습하고 또 다른 마술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봤다.

"제 마술을 이해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여성이면 돼요. 결혼은 하고 싶지만 정말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제 연인도 마술처럼 짠하고 나타나기만을 바랄뿐이죠. 하하."

최현우는 여름 공연을 마치면 11월 27일부터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개막하는 '셜록 홈즈'를 준비한다. 공연문의는 1577-3363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여자친구 사귀려 가볍게 시작
부모님이 반대해 집 나오기도

심리 연결시킨 '멘탈 매직' 연구
매직콘서트 '더 브레인'서 뽐내

일상 모든시간 마술과 함께해
결혼 원치만 연애할 시간 없어


절대공감 200% 심쿵로맨스 NO.1
로맨틱코미디 연극
극적인 하룻밤
거침없이 화끈하고 사정없이 새끈하다!
본격 연애 소동극!!
대학로 바탕골소극장 2014년 9월 26일~OPEN RUN
작 황윤정 / 제작·문의 거름 극단 거름 연우무대 / 예매 · 인터파크1544-1555 / 문의 · (주)악어컴퍼니 02-764-8760

늦여름도 핫한 가요계

소녀시대, 더블 타이틀 후속 활동
현아·주니엘, 21일 동시에 컴백
신인 걸그룹 에이프릴도 출사표

올 여름 가요계의 화두였던 '컴백 대전'은 8월에도 계속된다. 후속곡 활동을 선언한 걸그룹, 컴백을 앞둔 가수들, 그리고 데뷔를 선언한 신인 걸그룹까지 여가수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늦여름 가요계는 여전히 뜨겁다.

지난달 신곡 '파티(PARTY)'로 본격적인 컴백 활동에 들어간 걸그룹 소녀시대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정규 5집 음반 '라이언 하트(Lion Heart)'를 발표하고 후속 활동을 이어간다.


소녀시대



현아


에이프릴

이번 정규 5집 음반 활동은 '라이언 하트'와 '유 씽크(You Think)'의 더블 타이틀곡으로 활동을 계획해 주목된다. '라이언 하트'는 레트로 콘셉트의 복고풍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이다. '유 씽크'는 카리스마를 담은 강렬한 팝 댄스곡이다. 상반된 이미지의 노래로 소녀시대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이다.

걸그룹 포미닛 멤버 현아는 오는 21일 미니 4집 음반 'A+'로 1년 만에 솔로로 컴백한다. 총 5곡이 수록된 음반이다. 현아는 3곡의 작사를 맡아 6년차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담았다.

타이틀곡인 '잘나가서 그래'는 힙합 신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래칫 장르의 곡이다. 그룹 비투비 멤버 정일훈이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정일훈 외에도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번 음반에 함께 했다. '언프리티 랩스타' 출신 래퍼 육지담은 '얼음 땡'의 작사와 피처링을 맡았다. 인디 밴드 십센치의 보컬 권정열은 '내 집에서 나가'의 작사와 작곡은 물론 노래까지 담당했다.

앳된 이미지로 사랑 받아온 싱어송라이터 주니엘도 21일 신곡 '쏘리(Sorry)'로 1년 만에 컴백한다. 헤어진 연인을 떠나 보내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감성을 담은 곡이다. 그동안의 귀여운 모습에서 탈피해 한층 성숙해진 매력을 발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출사표를 던지는 걸그룹도 있다. 핑클, 젝스키스, 카라, 레인보우 등을 배출한 DSP미디어의 새 걸그룹 에이프릴이다. 소민, 채원, 현주, 나은, 예나, 진솔 등 6인조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24일 데뷔 앨범 '드리밍(Dreaming)'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데뷔 활동에 들어간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도쿄 재외한국학교로 전학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11시



강남과 정훈은 여름 방학 특집으로 일본 도쿄에 간다. 두 사람은 신주쿠에 위치한 재외 한국학교에서 생활하게 된다. 일본에서 자란 강남과 일본 활동 경험이 있는 정훈은 일본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무리 없이 소화한다. 그러던 중 일본인 아내를 둔 개그맨 정준하가 전학생으로 참여한다. '도라에몽' 덕후로 유명한 배우 심형탁도 함께한다. 일본을 처음 방문했다는 심형탁은 꿈에 그리던 도라에몽의 고향 방문에 감격한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 SBS '18초'

오후 11시15분

본격적인 조회수 배틀에 돌입한다. 소유와 찬열, 종민은 조금이라도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봉만대 감독은 연기자들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만다.



◆ MBN '엄지의제왕'

오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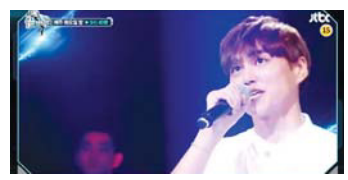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이유와 '산성화'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본다. '산성화'된 내 몸을 회복시키고 수많은 병의 두려움에서 당신을 구해줄 최고의 비결이 공개된다.



◆ JTBC '백인백곡-끝까지간다'

오후 9시40분

전인혁, 송지은, 홍대광, 스테파니, 이천원, 왁스가 해외여행 상품을 걸고 가장력 대결을 벌인다. 눈이 호강하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진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8일 (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907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신체가 튼튼!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헬로 코코몽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이웃집 찰스	50 오늘부터 사랑해 (93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47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51회)	00 지파이터스 30 EBS 뉴스 50 극한 직업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70회)	30 생생정보 55 1 대 100	55 딱 너 같은 딸 (67회)	00 SBS 8 뉴스 55 SBS 뉴스토리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인터뷰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세계석학이 본 대한민국 경제 100년 4부작 55 숨터	00 별난 며느리 (2회)	00 화정 (38회)	00 미세스캅 (6회)	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추억>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명강의 스페셜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18초	35 [광복 70년 특별기획]학교 교육 백년사	
24시	35 독립영화관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냉장고를 부탁해 (40회) (재)		10 비법 (1회)		00 무비스토커 (6회)	◆ 프로야구 (18:30) SK vs 롯데 (SPOTV+) 한화 vs KT (MBC SPORTS+) NC vs 넥센 (SKY SPORTS) 삼성 vs LG (SBS SPORTS) 두산 vs KIA (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10 미생, 완생을 꿈꾸다 (2회) 40 오 마이 갓 (31회)	30 오늘 뭐 먹지? (24·30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33회)	30 에어포스 원	
20시	50 JTBC 뉴스룸	40 현장토크쇼 TAXI (392회)	30 유미의 방 (8회)	00 세렝게티, 끝없는 생존 경쟁		
21시	4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39회)	40 집밥 백선생 (14회)	00 올리브쇼 2015 스페셜 (1회)	00 <와일드 헌터>2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22시			00 2015 테이스티로드 (26회)	00 빅데이터 마이닝 (7·8회)	00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	
23시	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57회)	00 막돼먹은 영애씨 14 (4회)	00 오늘 뭐 먹지? (42·21회)	00 <히틀러의 메가프로젝트>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		
24시	25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40회)	20 현장토크쇼 TAXI (392회) (재)	00 로맨스가 필요해 2012 (9회)	00 아시아 헌터 (5회)	00 부당거래	

세계의 벽 실감한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소피아 월드컵서 아쉬운 무관… 쿠드랍체바 5관왕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3관왕 손연재(21·연세대·사진)가 소피아 월드컵에서는 아쉽게 무관에 그쳤다.

손연재는 17일(한국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 종목별 결선에서 후프(18.350점) 5위, 볼(18.300점) 4위, 곤봉(18.350점) 공동 4위, 리본(18.300점) 4위를 기록하며 입상에 실패했다. 앞서 개인종합에서 72.800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도 5위에 그친 손연재는 이번 대회에서 단 하나의 메달도 획득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달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개인종합을 포함해 3관왕에 올랐던 손연재는 이번 대회에서 한층 물오른 기량을 선보이며 전 종목에서 18.300점 이상을 찍었다. 종목별 결선 4개 종목 모두에서 예선 때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그러나 동메달 경쟁자인 간나 리자트디노바(우크라이나)와 멜리치나 스타뉴타(벨라루스)가 호조의 컨디션을 보여 세계의 벽을 실감해야 했다.

후프 결선에서 여덟 번째 마지막 연기자로 나선 손연재는 이스라엘 피아니스트 다니엘 아드니의 클래식 연주곡 '코니시 랩소디(Cornish Rhapsody)'에 맞춰 섬세하고 완성도 높은 연기를 펼쳤다. 그러나 마지막 마스터리 난도에서 실수가 나왔다.

네 번째 순서로 나선 볼에서는 스페인 가수 라파엘의 팝 '소모스(Somos)'를 배경음악으로 각종 난도를 무리 없이 소화하며 고득점에 성공했다. 앞서 연기를 펼친 마르가리타 마문(러시아)이 실수 속에 17.050점에 그쳐 메달이 기대됐지만, 동메달을 따낸 리자트디노바(18.350점)에게 0.050점이 부족했다.

곤봉에서 또 한 번 네 번째 순서로 포디엄을 밟은 손연재는 델라댑의 신나는 재즈·포크곡 '치가니(Cigani)'를 배경음악으로 가장 완성도 높은 연기를 펼쳐 18.350점을 받았다. 하지만 리자트디노바가 18.500점을 얻은 탓에 입상에 실패했다. 일곱 번째 순서로 맞이한 마지막 경기 리본에서는 아돌프 아담의 발레곡 '르 코르세르(Le Corsaire)'를 배경으로 자신의 장점인 표정 연기를 살려 강렬한 리본 연기를 펼쳤다. 그럼에도 18.500점대를 넘어서는데는 실패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전 종목 금메달을 싹쓸이한 야나 쿠드랍체바(러시아)는 또 한 번 5관왕에 등극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마문이 은메달 3개(개인종합·후프·리본), 스타뉴타가 은메달 1개(볼)와 동메달 1개(후프), 알렉산드라 솔다토바(러시아)가 은메달 1개(곤봉), 리자트디노바가 동메달 5개(개인종합·후프·볼·곤봉·리본)를 나눠 가졌다. 스타뉴타와 리자트디노바는 후프에서 공동 동메달을 기록했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추신수, 2경기 연속 안타·타점

강정호는 46일 만에 휴식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사진)가 2경기 연속 안타와 타점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1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메이저리그 홈경기에 2번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45를 유지했다.

16일 탬파베이전에서는 홈런 포함 4타수 3안타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에서도 첫 타석부터 장타를 쳐내며 좋은 타격감을 이어갔다. 그러나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는 달성하지 못했다.

추신수는 0-1로 뒤진 1회말, 드루 스마일리의 시속 137㎞짜리 컷패스트볼을 받아쳐 중월 2루타를 쳤다. 2루 주자 드실즈는 여유 있게 홈을 밟았다. 프린스 필더의 중견수 뜬공 때 3루에 도달한 뒤 애드리안 벨트레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득점도 올렸다. 텍사스는 5-3으로 승리하며 4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46일 만에 휴식을 취했다. 같은 날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 메이저리그 원정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하희철 기자

'17세 천재소녀' 헨더슨 첫 우승

LPGA

장하나, 8타 차로 2위 차지

17세 천재소녀 브룩 헨더슨(캐나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캠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총상금 130만 달러·약 15억원)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첫 우승을 차지했다.

헨더슨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에지워터 컨트리클럽(파72·6476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적어냈다.

최종합계 21언더파 267타로 대회 최저타 기록을 경신한 헨더슨은 공동2위인 장하나(23·비씨카드), 폰아농 펫람(태국), 캔디 쿵(대만)을 8타 차이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는 2012년 신지애가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9타 차이로 우승한 이후 최다 타수 차 우승이다.

만 18세 이전에 LPGA 투어에서 우승한 선수는 15세에 우승한 리디아 고(뉴질랜드), 16세에 우승한 렉시 톰프슨(미국)에 이어 헨더슨이 역대 세 번째다.

헨더슨이 1~4라운드 동안 적어낸 보기는 단 3개에 불과하다. 1라운드와 3라운드에서는 버디만 각각 6개, 7개를 잡았고, 2라운드에서는 버디 6개에 보기 1개를 곁들였다.

지난해 퀄리파잉스쿨을 통과해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장하나는 이날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치고 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순위를 전날 공동 5위에서 세 계단 끌어올렸다. 그러나 데뷔 첫 승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

/하희철 기자



17일(한국시간) 미국 포틀랜드 컬럼비아 에지워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LPGA투어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캐나다의 브룩 헨더슨(17)이 우승을 차지한 뒤 미소짓고 있다. /AP 연합뉴스

맨시티 '디펜딩 챔피언' 첼시 3-0 완파



17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콤파니(맨 왼쪽)가 팀의 2번째 골을 넣은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아구에로·콤파니·페르난지뉴 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지난 시즌 우승팀 첼시를 완파했다.

맨시티는 17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서 세르히오 아궤로의 선제골 등 3골을 몰아치며 첼시를 3-0으로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로써 맨시티는 개막전 승리에 이어 2연승을 달리며 이번 시즌 쾌조의 스타트를 보였다. 첼시는 1무 1패를 기록하며 지난 시즌 우승팀으로서의 자존심을 구겼다.

맨시티는 전반 초반부터 첼시를 몰아붙였다. 전반 31분 아구에로가 첼시 페널티지역 부근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뽑았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맨시티는 후반 들어서도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후반 34분 빈센트 콤파니가 실바의 코너킥을 헤딩으로 연결하며 쐐기골을 넣었다. 5분 뒤에는 페르난지뉴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첼시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하희철 기자

One month after Samsung corporation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Lee Jea Yong Samsung' The Market looks away

삼성물산 합병주총 한달… '이재용 삼성' 시장은 철저한 외면

One month after the proposal of the merger between Samsung Corporation and Jeilmogic was passed; the reaction of the stock market of Yeyido was not so hot.

It was expected that Samsung Corp and Jeilmogic were losing its attention, but it looks like Samsung Electronics, the biggest beneficiary of this structural modification, is also being dumped by the market.

One month after the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Samsung Corp's stock price dropped by 30%. Not just that, but KCC, thought to be the 'white knight' that bought out all of Samsung Corp's shares, also couldn't avoid the fast drop of its stock value.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National Pension Fund that was for the merger of Samsung has been expected to have estimated loss of 600~700-billion-won.

It seems that KCC made their stockholders teary and National Pension Fund emptied the citizen's money saved for their old age in order to help establishing 'Lee Jae Yong Samsung'.

This is definitely the price that they had to pay as an assistant for hereditary of power ignoring perfectly fine rational market system.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7월17일 주주총회를 통과한 이후 한달 간 여의도 증권시장에 나타난 반응은 의외라고 할 정도로 차갑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물론이고 지배구조 정비의 최대 수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그룹사 삼성전자까지 시장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는 모습이다.

주총 후 한달만에 삼성물산 주가는 30%가 폭락했다. 심지어 삼성의 백기사로 나타나 삼성물산 자사주를 몽땅 인수한 KCC마저 주가 속락 사태를 맞았다.

삼성 합병에 손을 들어준 국민연금 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 보유지분에 대한 합병주총 이후 평가 손실만 6000억~7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이재용 삼성' 구축을 돕다가 KCC는 막상 자기회사 주주들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고,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털어먹는 꼴이 됐다.

합리적 시장 규칙을 무시하고 재벌 후계 구도 구축에 조력자로 나선 대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3	7		9	1
2		5				3		
	1			9				
1	7	9				6		
5	4			6			7	8
		8				9	5	2
				4			2	
		6				8		3
9	5		1	8				

			5	2				9
	2	8	9		7		1	
	9		8					
7		6		5				
	3	4				5	6	
				6		8		1
					9		3	
	6		3		2	4	7	
2				4	5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8	6	4	5	3	7	2	9	1
2	9	5	6	1	4	3	8	7
3	1	7	2	9	8	4	6	5
1	7	9	8	2	5	6	3	4
5	4	2	9	6	3	1	7	8
6	3	8	4	7	1	9	5	2
7	8	1	3	4	6	5	2	9
4	2	6	7	5	9	8	1	3
9	5	3	1	8	2	7	4	6

3	4	1	5	2	6	7	8	9
5	2	8	9	3	7	6	1	4
6	9	7	8	1	4	3	5	2
7	1	6	4	5	8	9	2	3
8	3	4	2	9	1	5	6	7
9	5	2	7	6	3	8	4	1
4	8	5	1	7	9	2	3	6
1	6	9	3	8	2	4	7	5
2	7	3	6	4	5	1	9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이성운·결혼운이 궁금합니다 2016년 기회… 조급해 마시길

스마일라 여자 92년 1월 13일 양력 13시50분

Q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번에 신청했었는데 메트로 지면으로 고민에 대한 답변을 만날 수 있어서 신기했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성운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저의 관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당분간 인연이 부족한 사주라고 알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네요.

92년 양력 1월 13일생 오후 1시 50분경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이성운, 결혼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수학의 공식과도 같은 60갑자(甲子)중에서 무자(戊子)일에 태어났습니다. 자(子)의 본주(本主)는 견문이 넓고 박식함을 상징합니다.

자(子)가 있으면 대개 날씬하고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의 인물을 상당히 중점시하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는 공직자나 성공이 보장된 듯한 직장인을 만나지만 남자는 어느 시기가 되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구조입니다. 이는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도 갑자기 그만두는 상황이 연출되니 사람을 만날 때는 직장 다니다가 사업을 구상하거나 돈을 많이 벌겠다는 각오를 세우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이야기 뿐만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만사만인(萬事萬人)을 대하는데 있어서 꼭 헤아려 봐야 할 문구입니다.

사주상담을 하는 것도 자신의 사주를 이해하면 좋은 점은 키우고 나쁜 것은 자제하고 주의를 하여 흉액을 덜 당하게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본인 또한 지기(知己)를 해야 하는데 '흙과 물이 배합된 형상'으로 보수적인 성향에 꼼꼼하고 차분하지만 간혹 비인(飛刃)의 과격한 기질을 드러내며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다가도 추진력이 약하여 싫증을 잘 느끼며 지속성이 없으니 일시적으로 성공을 해도 오래 지탱을 못합니다.

한참 사회활동 열심히 할 시기이니 생각은 단순하게 몸은 부지런히 생활하여 끈기와 집념을 세워야 이성을 보는 시야도 폭 넓어지게 됩니다.

장점으로 년월지에 천을귀인을 두어 주변에서 예기치 않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2016년도는 합이 많게 되니 조급해 하다가 만나지 말아야 할 어울리지 않는 이성을 만나 이성간에 혼탁 상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18일 (음 7월 5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잠시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60년생** 재능을 알아줄 사람을 만납니다. **72년생** 운이 잘 풀리는 하루입니다. **84년생**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자꾸 배워야 합니다.

49년생 금전운 이성운, 모두 조심하세요. **61년생** 순탄한 하루입니다. **73년생**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세요. **85년생** 종교를 믿으면 좋을 듯. 믿음을 간직하도록 하세요.

50년생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 **62년생**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 이룰 수 있습니다. **74년생** 윗사람을 말을 잘 따르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86년생** 대체로 무난한 평온한 하루입니다.

51년생 긍정적인 생각이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63년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75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되도록 피하세요. **87년생**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52년생 기분전환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64년생** 사업은 손해 볼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세요. **76년생** 먼저 사과하면 더욱 좋습니다. **88년생** 큰 성과가 있으니 집중력을 갖고 노력하세요.

53년생 뜻하지 않은 조짐이 있으나 자리잡는 과정입니다. **65년생** 주변 움직임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세요. **77년생** 바쁘게 움직이나 소득은 없습니다. **89년생**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54년생 엎지른 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66년생**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78년생** 상사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90년생**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좋습니다

55년생 피하지 말고 정면승부가 필요합니다. **67년생** 행동보다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79년생** 밝고 따뜻한 색과 함께 하면 행운이 있습니다. **91년생** 금전운이 좋습니다.

56년생 당장은 힘이 들더라도 어려운 쪽을 선택하세요. **68년생** 아랫사람보다 윗사람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80년생**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92년생** 겸손해야 안 좋은 일을 면합니다.

57년생 모나지 않게 행동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69년생** 일은 많은데 손은 부족합니다. **81년생** 한가지 일에만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93년생**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관계가 좋습니다.

58년생 일관되게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70년생** 상황은 좋지 않지만 주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82년생** 주변 사람이 잘 도와주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94년생** 이동수가 있습니다.

59년생 빠른 결정보다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71년생** 많은 변화 속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83년생**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95년생** 일보다는 마음 편히 쉬는 게 좋습니다.

미국소송과 디스커버리

<Discovery>



김재헌 변호사의
BizLaw

나의 경험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인 것 같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사자들이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재판이 쉽게 종결되지 않는다. 승패에 대한 전망도 쉽지 않다. 반면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당사자는 승패에 대한 전망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정확한 평가는 당사자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 그래서 합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한국에서 소송사건을 처리해 오면서 내가 늘 아쉽게 느끼는 것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증인신문을 해 보면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증인에게 많은 질문을 하기가 여의치 않다. 그래서 증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증거서류도 마찬가지다. 증거서류를 스스로 확보해 놓지 않으면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중요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쉽지 않다. 상대방에게 증거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해도 '영업비밀이다', '서류가 없다'는 등 이유로 서류를 잘 제출하지 않는다.

한편 미국소송의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서 디스커버리(discovery)가 있다. 디스커버리란 심리(trial) 전에 당사자가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유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지칭하는 것이다.

실무상 디스커버리에는 △상대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서(interrogatories), △문서제출요청(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 △증언녹취라고 하는 데포지션(depostion)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심리를 할 때까지 보통 1년여 동안 디스커버리가 진행된다.

여기서는 문서제출요청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미국소송에서 소송당사자는 분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에는 이메일도 포함된다. 이메일과 같은 전자문서의 경우 삭제하여도 흔적이 남게 된다. 코오롱과 듀폰의 소송에서 코오롱은 이메일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특이한 것은 변호사에게 제공된 서류는 변호사-고객간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에 의해서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제출요청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이행하게 되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심지어 패소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변호사들은 디스커버리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런 제재를 의식한다. 그래서 제출될 서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노력을 한다.

디스커버리제도는 한국에도 꽤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 도입을 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소송진행에 있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핵심이다. 오랜 세월 동안 미국에서 검증된 제도인 디스커버리제도의 장점을 도입한다면 실체진실의 발견과 분쟁의 신속한 종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社說

임금피크제의 전제조건

정부가 임금피크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장관들이 교대로 마치 임금피크제 하나에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것처럼 말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절박하다면서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벌들도 호응하기 시작했다. 현대차그룹에 이어 SK그룹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굳히려는 것 같다.

임금피크제의 원리는 얼핏 타당해 보인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면 절정기일 때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긴 한다. 청년의 고용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인생의 절정기라 할 장년기에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비는 허리를 휘청이게 만든다.

그러므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면 먼저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장년시기를 피곤하게 하는 문제, 특히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 등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임금피크제 적용기와 퇴직 후를 대비해 저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을 비롯한 교육비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장년기에 저축까지 하기란 정말로 힘들다. 그런데 뒤늦게 임금피크제라는 이름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늦게나마 조금이라도 저축할 여유마저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 임금피크제를 꼭 하고 싶다면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특히 대학등록금은 정부가 결심만 하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 그런 보완조치도 없이 무조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면 국민들의 노후만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9월 위기설', 소 잃기 전 외양간 점검해야



기자 수첩
백 아 란
<경제부>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위안화 평가절화 조치를 단행한데다 그렉시트(그리스 유로존 이탈)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 등으로 경기 불안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이어 터진 대외 리스크는 수출·내수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홍역을 치른 국내 경기에 치명타를 안겼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내달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는 '9월 위기설(September Risk)'도 대두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달러가치가 높아지고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흥국이 부도상태에 빠지는 등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더욱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계기로 각국이 환율전쟁에 뛰어든다면 세계경제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도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중국의 예기치 않은 위안화 평가절하에 경고등은 이미 켜졌다.

중국은 지난 11일부터 사흘 연속 1.9%, 1.6%, 1.1%로 위안화를 평가 절하했다. 이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환율이 치솟았고 세계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다.

중국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주식시장과 원화가치가 가파른 하락을 겪었다.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붙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또한 지난 13일 현재 6개월 만에 최고치인 63.10bp까지 올랐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이다. 프리미엄이 높을 수록 해당 국가 또는 기업의 부도 위험이 커졌음을 뜻한다.

문제는 정부에서 아직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1.5%로 동결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중국의 위안화 절하 조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다만 "환율 변동폭이나 속도가 과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유의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의 수출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라며 "국내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시장 변동성은 이미 경고등을 울렸다. 정부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 한발 앞선 대응이 시급하다.

별거 때 가재도구는 누구 소유?

생활 법률



3개월 전 가정불화로 서로 별거한 남편 이모(34)씨와 아내 김모(여·36)씨. 당시 이씨는 냉장고·텔레비전·가구 등 집안의 가재도구(유체동산)를 김씨가 나간 사이 직장 부근 거주지로 옮겼다.

하지만 김씨는 이 일로 최근 봉변을 당했다. 이씨의 채권자가 두 사람이 아직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김씨 소유의 가재도구에 강제집행한 것. 김씨는 이씨의 채권자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씨에게도 찾아가 본인의 가재도구를 내놓으라고 따졌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민법상 소유관계가 불명한 유체동산에 대해선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강제집행 당하는 상황에서 채권자를 몰아낼 수 없다.

김씨 입장에선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법원에 내야 효력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김씨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관대했다. 유체동산 같은 경우 소유가 불분명하지만 부부 공동소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왔다.

한 예로 2008년 정모(여·38)씨는 이 같은 일로 별거한 남편을 상대로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정씨의 손을 모두 들어줬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선 별거하는 과정에서 가재도구를 상대방이 못가져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가재도구가 공동 소유라는 인식을 배우자에게 심어줘야 한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통상정책국장 박진규 △과장급 전보 ▲유통물류과장 전응길 ▲아주통상과장 김대자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신성장정책과장 고광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이승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장 최성자
◇한국기자협회 △편집국 ▲편집국장 김성후 ▲취재부장 김창남 △사무국 ▲기획담당 부국장 김동기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부본부장 겸 입학전형실장 박필선
◇한림대학교 ▲부총장 변용환
◇목원대 ▲테크노과학대학장 김성수 ▲국제협력처장 이환태



하라반 스마트 하우스란? 카라반의 이동성! 글램핑의 아름다움! 컨테이너의 튼튼함!

이들의 장점만을 모아서 탄생시킨 분해 조립이 간단한 이동 조립식 하우스로 벽면이 튼튼(50mm 3중구조,0.8T 아연도금강판)하고 평평하여 누구나 시트필름 등을 활용 아름다운 집으로 또는 컨텐츠에 맞게 자유 자재로 꾸밀 수 있는 일명 조립식 아트하우스이다.

캠핑하우스

- 획기적인 투자비 절감(2천만원이면 캠핑하우스 “하라반”이 4채(소형기준))
- 1박 100,000원 기준 40일 이면 투자금 회수
- 캠핑장엔 왜! “하라반”이 필요할까요? 캠핑 참 좋은데 잠자리가 불편하고 힘들어! → 쉬운 캠핑문화로의 확산
- 시설숙박과 캠핑감성을 접목한 캠핑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의 쉼터

- 힘들게 농사일하시는 부모님들의 휴식처 농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농장,논,밭 등에 간단하게 설치, 부모님에게 선물로 큰 인기)
- 시골에 있는 자투리 땅에 간단히 설치하여 우리 가족 별장으로 활용
- 주말농장에 아름다운집, 주변환경과 너무 잘 어울려 알프스 농장분위기 조성

임시사무소&숙소

- 임시숙소로 인기 폭발!!(사랑하는 사장님!! 녹이 슬고 흉물스러운 컨테이너 말고 저희도 이제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는 아름다운 집에서 잠자고 싶어요.)
- 미관을 해치는 컨테이너 대신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아름다운 임시 사무소로 인기

지자체 소득증대 사업

- 계곡이나 하천 등 경관이 빼어난 곳은 무차별 캠핑인구의 유입으로 훼손되고 엄청난 쓰레기로 청소 등 복원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게 현실이다.
-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소자본으로 설치,지역주민들이 직접관리하게 하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수입으로 소득 증대,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산을 유지할 수 있다.

아름다운 집 하라반 설치 사례


주말농장 농막


피서지 숙박 수익사업


오토캠핑장


나만의 세컨 하우스

하라반 전원주택 선착순 10명 모집

주말별장, 주말농장, 전원주택을 동시에 ~!

홍천 : 토지 660㎡ + 하라반 하우스 = 5,950만원
제천 : 토지 830㎡ + 하라반 하우스 = 6,990만원


5-6인용(중형)


7-8인용(대형)

전국 시,군 대리점 모집중 하라반 스마트하우스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25길 26(양평동2가) 5호선 양평역 2번 출구

문의 : 전국 1833-5110

공휴일 24시간 상담가능 *신청금 50만원 농협 301-0148-5064-51(주)이노웍스